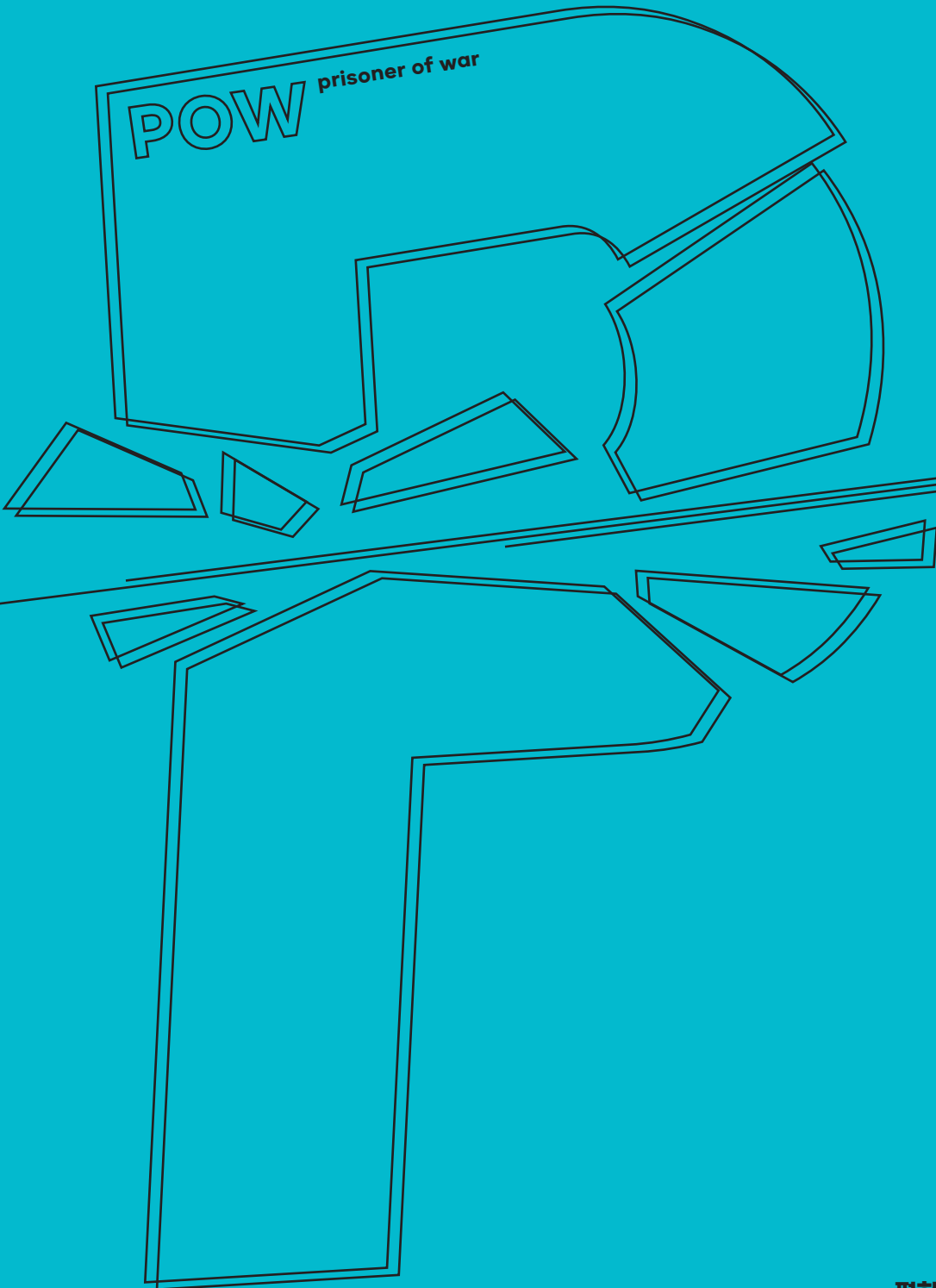


vol.4

내 아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권리

아시안 혐오,  
우리+그들의 이야기

플랜P



ISSN 2733-9254

평화저널

계간 평화저널

# 플랜P

2021년 여름 제4호

2020년 5월 15일 등록 종로, 바00221  
2021년 6월 21일 발행 통권 제4호 [POW]

발행인 김복기  
편집장 이은주  
편집위원 김가연 김상덕 김성한 김수연 김유승 박숙영  
디자인 더디앤씨 | www.thednc.co.kr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발행처 평화저널  
출판등록 2020. 5. 12. 제2020-000052호  
주소 (0314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428 낙원상가 5층 500-14호  
이메일 pjplanp@gmail.com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  
페이스북 facebook.com/PJPlanP  
전화번호 02-6339-2272

ISSN 2733-9254  
ISBN 979-11-971531-3-6  
값 12,000원

## 목차

004

Overview **펴내며**  
제4호 'POW'  
길안내

010

Focus on **특집**  
피워드 분단된 마음과  
혐오에서 평화정동으로  
  
피스 프리즘 아시안 혐오,  
우리+그들의 이야기

032

Data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피스  
국방비, 이제는  
다르게 써야 할 때

040

Interview **만남**  
인물 서정기  
단체 한베평화재단

064

Issue **이슈**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068

Learning **배움**  
평화의 언어를 배우는 방법  
  
연대의 첫걸음인  
공감과 이해를 돕는 보드게임

078

Voice **기고**  
“내 아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권리”  
: 스위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50년간의 활동  
  
전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위한 작은 선택  
: 2018년 이스라엘·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호방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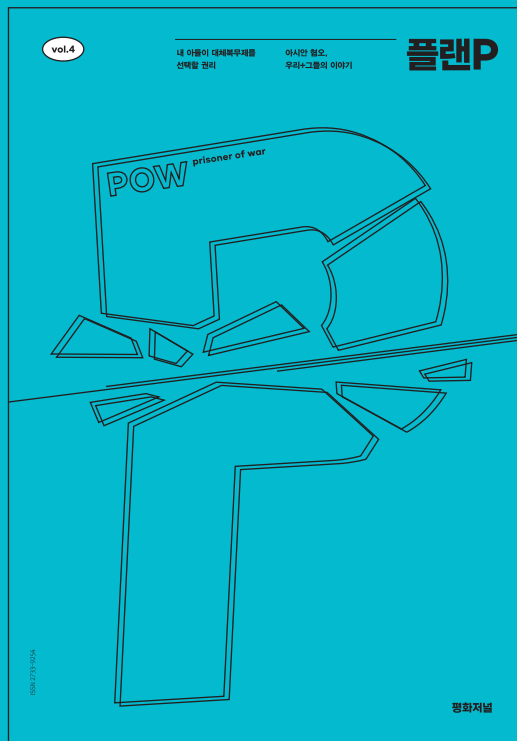
090

Culture **문화**  
드라마 〈펜트하우스〉  
  
책 《어둠의 세계》

098

Notice **공지**  
〈평화저널 플랜P〉가 알립니다

# 제4호 POW



# 길안내

글 이은주 <평화저널 플랜P> 편집장

## POW prisoner of war

편집위원들과 매호 첫 기획회의마다 갖는 브레인스토밍 시간은 몹시 즐겁습니다. 잡지명 ‘플랜P’를 따라 매번 알파벳 ‘P’가 들어간 단어로 해당 호 주제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 호에 담고픈 이야기들을 전부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회의부터 그야말로 아주 사로잡히지요.

이번 호 키워드로는 ‘POW(Prisoner of war)’에 뜻을 모았습니다. 제안해주신 감성찬 편집위원의 이야기는 이력했습니다.

“제네바 조약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면 모든 포로가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70년 전 시작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일상이 되어버린 전시(戰時)의 삶을 낯설게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의 삶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네 번째 <플랜P>를 만들어봅시다.”

꼬마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여전히 군대에 가고, 뉴스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을 종종 들으며 코로나로 인한 재정 악화 속에서도 국방비 증가와 끊임없는 무기 제작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지요.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전환을 위해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을 풍부하게 제공해보고자 했습니다.

〈평화저널 플랜P〉 제4호 키워드는 ‘POW(Prisoner of war)’입니다. 글 전반에 전쟁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로잡힌 다방면의 삶을 다루고 있어서 제법 풍성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어떤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지 불현듯 알아차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번 호를 통해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전쟁에 사로잡힌’ 지금의 삶에 직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면이 평화로 나아가는 실천적 아이디어를 우리의 일상에 샘솟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해당 호의 키워드를 주목해보는 **[Focus on]** ‘피워드(P-word)’에서는, 김엘리 님이 지금과 같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전쟁과 군사주의에 사로잡힌 일명 ‘분단된 마음’에 관해 다루어주셨습니다. 적대감, 혐오 같은 감정이 생산해 내는 사회 공간이 어

떠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주신 덕분에 평화를 향한 의지를 내는 데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피스 프리즘’에서는 ‘아시아 혐오, 우리+그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포럼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김신야 님과 미국에 계시는 수 박허 님,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박재운 님과 박진숙 님이 패널로 참여해주셨고, 특히 이번 주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진행하다 보니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등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이주의 맨얼굴을 엿볼 수 있었으며, 차별과 증오, 혐오라는 감정들은 엄청난 무지가 낳은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70년 전 시작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우리는  
지금도 전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Data]** ‘비주얼라이징 피스’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이영아 활동가가 낯날이 파헤쳐준 ‘군사비 지출’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그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불평등 해소 등에 더 사용될 필요가 있는 국가 예산이 무기 수입과 군사비로 쓰이는 지금 한국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Interview]**에서는 다양한 평화단체와 평화활동가를 직접 만나봅니다. 그들이 지닌 보물 같은 자원들을 평화의 눈으로 발견해내고, 특히 지금의 자신들이 있기까지 영향 받은 인물이나 사상, 환경 등을 이야기 듣습니다. ‘인물’에서는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회복적 정의 실천가이자 교육자, 연구자로서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와 한국 사회가 공통되게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지닌 의미와 그 치유 방향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회복적 시민’, ‘회복적 마을’ 등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단체’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죄와 성찰을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는 ‘한베평화재단’을 만나보았습니다. 굴절된 전쟁 역사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평화 감수성 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재단을 통해 전쟁의 상흔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Issue]**에서는 한창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관해 조명하였습니다. 쿠데타 발발의 진실과, 한국 시민사회가 풀어나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상황에서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전환을 위해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을  
풍부하게 제공해보고자 했습니다.



**[Learning]**에는 평화를 삶의 기술로 쓰고자 시도하는 두 글을 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랐고 영어가 원어인 권세리 님이 한국어와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을 접하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주시면서, 군사주의적 언어를 평화의 언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언어 학습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세라 님이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는 보드게임을 직접 제작하신 배경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지역의 역사와 지금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Voice]**에서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스위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50여 년

간 활동해 오신 브루노 & 하이디 자게셔 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훗날 내 아들이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꿈으로 시작된 변화에 대해 만나보시지요. 또한 2018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신 김복기 님의 회고를 담아보았습니다. 연대의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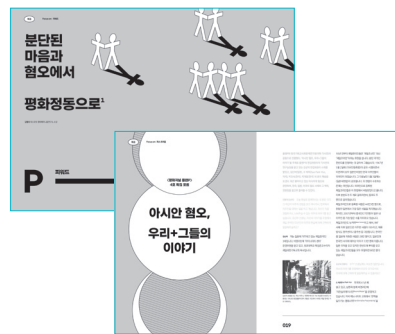
**[Culture]**에서는 평화에 말을 건네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만나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소위 '막장 드라마'인 <펜트하우스>를 청어람ARMC 대표 오수경 님이 평화의 관점으로 해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900쪽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번역되어 탄생한 책 <어둠의 세계>를 다뤄보았습니다. 1900

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무기거래의 대서사가 담긴 책이라 무력감을 주기도 하는데, 서평을 보내주신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신재욱 님은 이를 오히려 연대를 위한 동력으로 삼자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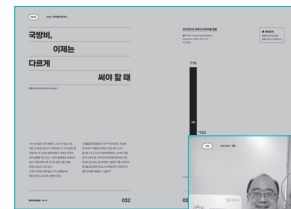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Notice]**를 통해 구독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QR코드를 담아놓았으니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구독 신청 페이지로 곧장 연결됩니다. 또한 협력해주시는 분들의 성함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적었고, 놀랍도록 늘어난 오프라인 입고 책방들 이름도 적어놓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둘러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랜P> 제4호 'POW'를 만나러 가지겠습니다. 여러 폭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화를 일궈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곳곳에서 여러분과 평화의 공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P**

Focus on - 피워드



Data



Interview



Voice



notice



분단된  
마음과  
협오에서



평화정동으로<sup>1</sup>

김엘리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소장

P

파워드



WORD

**분단사회에서 구조화된 감정은 어떤 것일까?**

유월은 온다. ‘우리 어찌 이날을 잊으랴’라는 6·25전쟁 노래가 어김없이 반복 재생되는 달이다. 그 노래의 음을 하나하나 짚었던, 내 어릴 적 청아한 풍금 소리도 귓가에 들린다. 우리는 매년 그 노래를 부르며 성장했고, ‘원썩’라는 노랫말은 허공을 맴돌았다. 우리는 70여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분단사회에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적대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 마음은 비단 특정한 개인이 겪는 정신적 상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영근 한국 사회의 감정 구조이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대립을 이룬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의 공포는 상존했고, 적대감은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으며, 누군가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불안감은 주조됐다.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보자. 미군정시기, 6·25전쟁, 군부독재정권,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구성된 남한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히 북한을 향한 외부적 감정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검열 속에서 특정한 사유와 행위로 구성됐다. 불안과 공포, 적대감은 반공 쫓기대회, 반공 웅변대회와 문예활동, 학교교육뿐 아니라 여러 공간에 설립된 전쟁기념관과 기념탑, 건축물, 그리고 영화와

만화, 포스터, 배라 등을 경유하면서 남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집합적 감정 양식이 되었다.<sup>2</sup> 차이와 다양성보다는 일치와 통합을 위해 동일성을 추구한다든가 민족주의에 대한 과도한 감성과 함께 군사주의에

조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감정은 개인이 느끼는 것이지만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움직이고 재생산한다. 타자들과의 사회관계에서 형성되고, 그 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사라 아메드 Sara Ahmed는 감정을 ‘몸과 대상 사이의 접촉contact을 통해 몸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압축된 문화 의미들이 일어나고 사회 규범이 작동하는데, 이는 몸들 사이의 근접성을 다르게 배치한다. 적대감과 혐오 같은 감정은 몸들 사이의 거리를 넓히며 긍정적 감정들과는 다른 규범적 사회공간을 생산한다.<sup>3</sup>

말하자면, 감정은 특정 집단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공유되며 전달되는 산 경험”이자 “집단의식 속에 견고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회·역사적 현상”<sup>4</sup>이다. 감정은 머물지 않고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그 가치를 증폭시킨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는 이렇게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감정이 있다. 이 구조화된 감정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해 생성된 마음이면서 동시에 분단을 지속시킨다. 이 글은 이를 ‘분단된 마음’이라고 부른다.

**분단된 마음**

분단된 마음은 불안감, 공포, 적대감 등 여러 감정들이 중복되고 중첩된다. 이 감정들은

3. Sara Ahmed(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New York: Edinburgh University Press.  
4. 이영호(2015),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이론>, 제20권 1호, 113-139쪽.  
5. 한상효(2018), “‘분단감정어 사전’ 개발 연구”, <통일인문학>, 제75집, 11-14쪽.  
6. 김중곤(2018), “‘분단적 대상’의 역사적 발원과 감정 구조”, <통일인문학>, 제75집, 5-32쪽.

1. 이 글은 “혐오정동의 분단된 마음 정치학”(여성학) 37권 1호, 2021)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2. 이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글은 꽤 많다. 예를 들면, 전영선(2018), “적대의 이미지와 기억으로 본 북한”, <문화와 정치>, 제5권 3호, 77-105쪽; 전진성·이재원(편)(2009), <71년과 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김성경(2020), <갈라진 마음을: 분단의 사회심리학>, 서울: 창비 등이 있다.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자극한다. 분단 때문에 형성된 적대성은 분노, 원한, 증오, 혐오의 형태로 분출되거나<sup>5</sup> 여러 감정 중에서 혐오와 분노가 으뜸임을<sup>6</sup> 밝히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감정들은 맞붙어 작동하기도 하고 제휴하기도 하고 모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혐오와 적대감은 유사한 원리를 공유한다. 그중 하나가 정체성의 정치이다. 혐오 발화는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그들의 속성을 부여한다. ‘그들은 무엇이다’는 정체를 규정하며 편견을 퍼뜨린다. 그리고 자신들과 국가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린다. 적대감도 마찬가지이다.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군사주의를 통해 살펴보자. 군사주의는 적의 존재를 창출하고 적대감을 만들면서 ‘적, 그들은 무엇인가’라는 설명을 통하여 적과 우리를 대별한다. ‘적’은 난폭하고 폭력적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반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며 질서를 수호하는 의로운 집단으로 특성화된다.<sup>7</sup> 적을 상징하고 규정한 일은 단순히 적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고 선하고 의로운 존재임을 표명하는, 즉 우리를 정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집단을 부정하고 적대하면서 자신을 정체화하니, 적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7. Sam Keen(2004), *Faces of The Enemy*, New York: Harper & Row, p.51.  
8. 카롤린 옌케(2017), <혐오사회>, 정지인(역), 파주: 다산북스.  
9. 신시아 인로 (2015),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선이 되었는가?>, 김엘라·오미영(역), 서울: 바다출판사, 25쪽.  
10. 마사 너스바움(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역), 서울: 민음사, 185-214쪽.

보존이다. 혐오는 ‘우리’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오염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감정 구조이다. 민족이나 국가의 동질성을 수호하고 젠더 질서를 유지하며 문화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문화를 배제한다.<sup>8</sup> 여기서 혐오가 일어나는 지점은 차이를 경계로 바꾸는 경직된 영역에서 정치적 이념이 작용하면서이다. 혐오는 안과 밖의 경계를 흐트리면서 기존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판단될 때 투사되는 불안감의 발로이다. 분단된 마음의 적대감도 유사하다. 특히 군사주의적 적대감은 적을 섬멸하거나 정복하여 ‘우리’ 안으로 포섭하려는 사회적 에토스이다. 차이를 ‘우리’의 안으로 포섭하여 동질화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때 군사적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사유와 언행, 지향을 신시아 인로 Cynthia Enloe는 ‘군사주의’라고 말한다.<sup>9</sup>

**혐오 발화는 분단된 마음 자장 안에서**

최근에 ‘혐오’라는 단어는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주요한 핵심어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 적대감이 사회적 징후로 주목받을 만큼 부상했다. 혐오 감정은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특정 집단을 구별 짓고 배척하면서 분리과 차별, 폭력을 일으키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여타 감정들의 속성과 구별된다.<sup>10</sup>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확장적 감정의 동력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분리와 해악의 감정인 것이다. 그런데 혐오 발화는 단순히 1987년 이후 민주화 체제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불안과 위기라는 맥락에서 일어나지만은 않는다. 분단사회와 냉전체제라는 역사성과 무관하지 않다. 혐오 발화는 분단된 마음 자장 안에서

11. 석승혜·장안식(2017), “극우주의의 프레임과 감정 정치: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통한 일베 커뮤니티 분석”, 《한국사회》, 제18집 1호, 3-42쪽.  
 12. 홍민(2015),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연구,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 80-121쪽, 83-92쪽.  
 13. 김홍중(2009), 《마음의 사회학》, 서울: 문학동네, 44-45쪽.  
 14. 카롤린 옌케(2017), 《혐오사회》, 정치인(역), 파주: 다산북스, 23쪽.

일어나고, 동시에 분단을 지속시키는 감정 에너지이다. 혐오 발화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자,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게 각기 개별적으로 혐오 발화하는 듯이 보이나 혐오 대상들에 대한 감정들은 서로 엮여 있고, 유사한 의미 계열을 이루며 담론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일간베스트(일베)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과거를 소환하며 위대한 조국 재건을 운운하는 한편,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등치한다.<sup>11</sup> 그런데 페미니즘과 여성 이슈가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좌빨이나 종북 프레임 안에서 거론되는 것은 혐오 대상자들과의 상관성으로 동일 계열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의 참여 집단들이나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안티페미협회와 같은 단체들과 우익 보수 논객들이 빨갱이 혹은 종북페미, 종북계이를 발화하는 배경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정치적 서사구조는 꽤 유사하다. 가족해체와 한국적인 것(민족),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요소는 서사의 기본 토대를 이룬다. 이러한 노출은 혐오 발화가 분단사회에서 구조화된 감정에 깊이 착종되어 있음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혐오 발화가 분단을 소환하며 분단된 마음 자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는 분단 권력이다. 분단 자체가 혐오 발화를 촉진하거나 효력을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분단은 안보 담론으로 프레임되고 소비되면서 권력으로 작동한다.<sup>12</sup> 이를테면 분단은 일반 사회 법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균형법상 추행죄가 존속해야만 하는 근거로서 항상 소환되고 국가안보의 위해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알리바이가 된다. 분단은 안보로 번역되어 소비되는 것이다. 여성과 동성애자들에게 빨갱이냐 종북계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유된 분단 권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혐오 발화자는 빨갱이와 종북계이를 반복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분단 권력을 행한다. 그래서 분단은 지속되고 재생산된다. 또 하나는 분단된 마음의 수행과 그 수행의 효과로서의 주체 생산이다. 빨갱이라고 발화하면 분단된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자 분단 권력을 행하는 것인데, 이는 반공국가의 국민을 생산하는 효과를 낸다. 분단된 마음은 남한 사람들의 사유와 언행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이끄는 행위 양식으로 개인이 분단된 마음의 주파수에 자신을 조율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지닌다.<sup>13</sup>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특정한 위기와 만나면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은 특정 집단을 끊임없이 타자화하고 공격하는 정서적 기제가 된다. 때로 불안증은 빨갱이와 종북계이, 종북페미로 몰아가는 망상으로 나타난다.

**젠더화된 적대감, 죽여도 되는 빨갱이**

적대감은 단순히 북한과의 대립에서 파생되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선재하는 적의 존재성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아닌, 국가안보와 통합을 위해 적을 상징하고 조성된 감정인 것이다. 교육과 전시, 박물관, 노래, 글쓰기, 의례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적대감은 조성되고 실행된다. 혐오도 마찬가지다. 적대감과 혐오는 갑자기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양식,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 틀 안에서 일어난다.<sup>14</sup>

15. 강성현(2013), “아카와 빨갱이의 탄생”, 《사회와 역사》, 제100집, 65쪽.  
 16.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 형성》, 서울: 선인.  
 17. 박찬모(2016), “‘빨갱이’와 이데올로기적 환상 : 여순사건 ‘반란실정조사반’의 기록과 수치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제12집, 61-96쪽.  
 18.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형성》, 서울: 선인, 434-436쪽.  
 19. 강성현(2013), “아카와 빨갱이의 탄생”, 《사회와 역사》, 제100집, 88쪽.

한국사회에서 적대감이 구체화된 언어인 ‘빨갱이’도 역사적 사건과 이미지들 안에서 재현됐다. 분단사회에서 빨갱이라는 호명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닌 존재들을 적이나 이단으로 만드는 데 사용됐다. 빨갱이는 종북계이, 종북페미와 현재 혼용되지만 그 담론의 의미를 달리하면서 변용됐다. 뚜렷한 현상은 빨갱이 담론이 국가의 차원에서 생성되었으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오면서 시민들 간에 유통되는 양상을 띠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빨갱이는 일제 강점기의 ‘아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초기 빨갱이는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고 배격하는 대상으로 타자화하며 정치적 낙인의 의미가 있었다.<sup>15</sup> 그런데 역사적으로 빨갱이가 ‘죽여도 되는 존재’ 혹은 ‘죽여야 하는 존재’로 그 의미가 변용된 계기는 여순사건이다.<sup>16</sup> 제주 4·3사건에 투입될 14연대 하사관들이 파병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이 봉기는 여수와 순천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확대되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죽여도 되는 빨갱이가 되었다. 배제의 대상에서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전환된 이 인식론적 변화는 빨갱이의 의미가 생성되고 증폭되면서였다. 당시 여순 봉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문인조사반원들이 남긴 글들은 빨갱이가 무엇인지 그 속성을 규명하는 효과를 낳았고, 반복되고 증폭되면서 빨갱이의 실체를 형상화하는 전거가 됐다.<sup>17</sup> 빨갱이는 여순사건을

경유하면서 속성을 지닌 실체로 가정되었고, 반공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빨갱이의 승인을 촉진하고 강화했던 것은 여학생 부대 일화였다.<sup>18</sup> 여학생이 군경을 유인한 뒤 치마 속에 감춘 총을 꺼내 쏜다는 일화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당시 시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다. 여성의 유혹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유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사람들의 불안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유혹당하지 않고 반공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빨갱이를 섬멸하거나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죽여야 하는 빨갱이는 여성의 몸으로 구체화되었다. 여성화된 빨갱이는 유혹적이지만 치명적인 속성을 지닌다. 불순한 균이 내 몸에 침투하듯 우리는 오염될 수 있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반공주의를 남성적 성적 환상으로 풀어낸 빨갱이 담론은 여성에 대한 매혹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낸다. 여순사건을 연구한 김득중은 반공주의가 남성성과 결합하여 여성의 몸을 동원함으로써 적대성을 고조시켰다고 분석한다. 당시 빨갱이의 이미지는 유혹하는 요부와 같은 여성화된 형상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는데 여간첩의 일화에도 이어진다. 유혹과 위험 그리고 정복이라는 서사는 남성화된 반공국가의 정화를 뜻한다. 여성화된 빨갱이의 정복은 “사회의 불온한 신체이자 성적 욕망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는 곧 “반공국가가 남성의 건강한 신체로 재창조되기 위한 의미작용의 순환”인 것이다.<sup>19</sup> 이로써 반공주의적 정체성은 건강한 국가와 남성 국민을 확고하게 세우는 기틀이 된다.



남성화된 정상국가 만들기 기획

빨갱이 담론은 이후 배제와 포섭의 정치로 수행하고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고 위계화하는 장치가 됐다. 동시에 이른바 ‘우리’를 조직하고 통합하며 사회적 동일성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오면서 빨갱이 담론은 점차 시민들 사이에서 발화되고 논박되었다. 반공주의의 직접적 위력은 약해졌지만, 사회적 낙인과 격리, 박멸의 기능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이 빨갱이라고 지시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국가산점 폐지와 관련된 경우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산점 폐지를 판결한 이후, 2000년대 초반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에게 부여된 빨갱이라는 호명이다. 두 번째는 2005년 호주제 폐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특히 1998년 이후 2000년대 초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호명된 빨갱이이다. 세 번째는 최근 페미니즘적인 이슈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빨갱이라고 지시되는 경우이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달라붙은 감정으로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를테면, 미투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빨갱이라고 지시하는 경우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호주제 옹호자들은  
여성들을 ‘오줌 싸는  
빨갱이년’이라고  
힐난하며, 호주제를  
폐지하면 “북한의  
대남적화(가)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0</sup>

20. 정통가족제도법국민연합, 2003.10.4., **민법중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고은광순(1999), 《어느 안티미스코리아의 반란》, 서울: 인물과사상사.  
21. 정정훈(2014), “혐오와 공포 이면의 욕망: 종북 담론의 실제”, 《우리교육》, 3월호, 98-99쪽.  
22. 모스, 조지(2004), 《내서 널리침과 색수염리타》, 서강여성문화연구회 옮김, 서울: 소명출판

호주제 옹호자들이 호주제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여성들을 빨갱이와 결부시킨 수행은 가부장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질서를 지탱하는 제도이자 법적 근거로서 가부장의 위치를 단단하게 붙잡아 두는 질서였다. 그들이 거리에 나오도록 추동한 감정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은 사회질서와 국가가 위태로워진다는 공포와 결합되면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분노를 야기했고, 그들이 결속하고 연대할 수 있었던 공공의 사회적 감정이 되었다. 불안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모호한 것이라면, 공포는 적이라는 대상을 상정하면서 외부의 정치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 호주제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함으로써 그들의 불안과 공포는 분단된 마음의 자장 안에서 애국적 행위라는 의미로 작용한다. 호주제 옹호자들의 서사는, ‘가족문화 파괴 - 사회 타락 -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구도를 이룬다. 가족문화 파괴가 국가를 위협에 빠트리라는 안보로 번역될 때, 이는 예외상황을 초래하며 분단된 마음 자장 안에서 전선을 형성한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결혼 지연과 이혼, 출산율의 저하를 초래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위험한 자들로서 적으로 설정되고, 이 전선은 내부 결속과 동질성을 구축한다. 가족문화 파괴가 도덕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될 때, 그들의 발화는 정치적 울바름을 획득하고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가 된다. 2012년 이후 발견되는 ‘종북페미(니즘)’라는 용어는 어떠한가? 여기서 종북은, 북한에 대해 가난하고 열등하다는 비합리적인 표상을 지닌 세대에게 ‘종북’은 사고능력이 떨어지는 ‘후진 행위’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sup>21</sup> 그러니까

종북페미라는 용어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지능 낮은 여성을 뜻하는 것이다. 빨갱이 혹은 종북계기와 종북페미 명명은 현상적으로 진보정치를 반대하는 프레임에서 소비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혐오는 다양한 대상들 사이를 횡단하면서 남성화된 정상국가 만들기 기획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평화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다는 것

여성 혐오에는 서사가 있다. 가정이 남성화된 민족주의의 기본 토대라는 인식이 그 안에 있다. 오염으로부터 정화된 건강한 국가는 바로 이 전통적인 젠더 질서를 보존하는 가정을 토대로 세워진다. 근대국가가 생성될 무렵부터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조화와 질서, 균형으로 여겨졌고, 이는 건강한 남성성 혹은 남성의 몸으로 상징됐다.<sup>22</sup> 이 서사에는 가정 해체와 젠더 질서의 균열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안보 담론으로 번역된다. 분단사회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사항의 우선권을 발동하며 예외적 상황이라는 모드로 전환시킨다. 호주제폐지, 미투운동, 균형법상 추행죄, 차별금지법을 안보 문제로 환원하면 시급하고 절박한 국가 위기가 된다. 안보의 차원, 말하자면 국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하니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적 전투는 당연한 애국적 행위로 의미화된다. 안보가 발화의 힘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혹은 발화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분단과 대적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정치적 해석에서 온다. 분단은 안보 담론으로 번역되어 권력이 된다. 이를 당연한 관례와 문화로 여겨왔던 사회에서 빨갱이와 종북페미 호명이 분단을 소환한다는 것은 혐오가 바로 이 분단 권력에 기대어 작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서사는 젠더화된 정상 국가 만들기 기획임을 드러낸다. 오염으로부터 정화된, 무질서와 불균형으로부터 안정적인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가정 가치가 보존되고 젠더 질서가 잡힌 사회 모델을 지향한다.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빨갱이 혐오 발화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투이다. 반복적으로 이를 인용하고 공격적으로 전파하는 언행은 분단된 마음을 수행하고 분단을 호출하고 확증하며 지속시키는 효과를 낸다. 페미니즘으로 평화를 읽는다는 것은, 젠더 지형도 변화하고 반공 이념도 약해졌으나 여전히 남한 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감정 구조를 드러내는 일이다. 분단된 마음이라는 이 감정 구조는 6·25전쟁의 기억과 분단사회에서 오랜 시간 구조화된 감정이다. 그런데 이 감정 구조는 젠더에 기대어 움직인다. 전쟁과 군사주의에 사로잡힌 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적대감과 혐오를 주조하는 이원화된 체제에서 탈주하는 것이다. 감정(여성성)과 이성(남성성)을 구별하고 위계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감정이 이 사회를 움직인다면 이를 드러내는 움직임, 이것이 평화정동이다. P

〈평화저널 플랜P〉  
4호 특집 포럼

# 아시아인 혐오, 우리+그들의 이야기

플랜P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아시아 혐오, 우리+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플랜P의 편집위원이자 기사연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상덕 편집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신야(일본), 수 박허(Sue Park-Hur, 미국), 박진숙(한국), 박재윤(한국) 네 분의 패널을 모셨다. 최근 불어지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와 관련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혐오 사례와 그 맥락, 전환점을 골고루 들어볼 수 있었다.

**진행자(김상덕)** 오늘 패널로 함께하시는 네 분은 각각 그 자신이 이주의 경험을 갖고 계시거나,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나눠주실 수 있는 이주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신야 선생님,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제일 한국인/조선인의 이주와 현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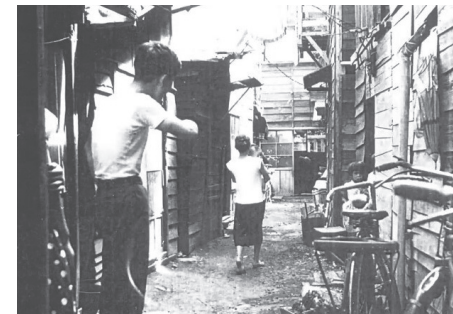
**김신야** 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3세입니다. 비영리단체 '마이너리티 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릿쿄대학교 특임준교수이자 재일대한기독교회 목사입니다.

10년 전부터 재일한국인들은 '재일조선인' 대신 '재일코리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947년 5월 2일에 <외국인등록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이전까지 모두 일본인이었던 한국 이주민들이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3일에는 <일본국헌법>이 공포됩니다. 이 헌법이 수호하는 존재는 국민입니다. 외국인으로 등록된 재일코리안들은 이 헌법에서 버림받았다고 봅니다. 이후 한반도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동포도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재일코리안으로 등록된 사람은 46만3천 명으로, 한동안 일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중국인(77만명)이 일본 내 이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일코리안도 뉴커머<sup>New Comer</sup>라고 해서, IMF 사태 이후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이 다수이고, 체류 방식도 영주권이나 종주권 등 다양합니다. 한국인 중 일본에 귀화한 사람은 28만 명이고,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13만 명에 이릅니다.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반도에 뿌리를 갖고 있는 재일코리안들을 모두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습니다.

**김상덕(진행자)** 수Sue 선생님께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민자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 박허(Sue Park-Hur)** 미국에 41년째 살고 있고, 남편과 함께 비영리단체 '리컨실리에이시안<sup>ReconciliAsian</s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평화사역<sup>Transformative Peacemaking</sup>'을



김신야 선생을 안고 계신 어머니, 뒤편에 북으로 가신 외삼촌이 보인다. 이 동네는 1963년 동경올림픽 준비 개발로 지도에서 사라진 재일 한국인 거주 지역이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 이민자들의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그림pilgrim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지금의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상륙했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사람들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민자들이 미국을 세웠다는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말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에 더 가까운 이야기는, 원주민들로부터 훔친 땅 위에 훔쳐 온 사람들 즉, 노예를 토대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를 뒤집고 그 중심을 바꾸어 놓으면, 비로소 왜 지금 미국에서 혐오와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해 9일 동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1980년 5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때였고, 내적인 불안 역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17세 때 겪었던 한국전쟁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었고, 이 때문에 일자리를 갖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미국에 살던 작은 고모 덕분에 가족 초청 비자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고모부의 누나가 백인 미군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자라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땅과 삶을 통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한국에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약 80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약 2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평택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미국에 왔지만,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우리 몸에 남긴 트라우마도 함께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비-백인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 트라우마는 더욱 악화됩니다. 미국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사를 지우고, 모습을 드러내거나 소리내지 않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작가이자 예술가인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은 에세이집 《사소한 감정(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2020)》에서 역사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역사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역사나 사회 교과서를 받게 되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사람과 관련된 문단은 한 군데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했는지를 쓴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로서 역사가 결핍된 채 거시적인 이슈와 연결성을 갖지 못하고, 그저 생존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을 아주 편협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덕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김상덕(진행자) 박진숙, 박재윤 선생님께는 한국의 상황을 여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윤 선생님께서 국내 이주민의 전반적인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주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박진숙 선생님께는 특별히 한국으로 오게 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재윤** 비영리단체 ‘호모인테르’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모인테르는 ‘소통하는 인간’ 혹은 ‘관계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이주민 대상의 통역, 교육 워크숍,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내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 이주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이민을 오는 사람이 가는 사람보다 많은 ‘이민 유입국’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다문화가 ‘차마시는 문화’라는 의미였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떠올리는 ‘다문화多文化’로 사용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가 휩쓸었던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19.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이주민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의 이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합니다. 학계에서는 5%를 넘어서면 ‘다문화 국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수도권이 60% 이상, 경기권에 약 30%, 영남권 18%, 충청권 10%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주의 종류를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으로 나눕니다. 흔히 결혼이민자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니, 결혼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50만 명(2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이주민을 일컫는 용어도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주로 지원 정책의 대상이나 호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용어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토착 호주인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 모두를 통칭하는 용어로 ‘칼드CALD,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방인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게오르크 짐멜 Georg Simmel은 이방인의 존재를 ‘오늘 와서 (떠나지 않고) 내일도 머무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다면, 이제는 함께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박진숙** 비영리단체 ‘에코팜Ecofemme’를 2009년에 설립해서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부터 콩고 난민 여성에게 대표 자리를 넘겨주고, ‘에트랑제’라는 1인 조직으로 독립하고 혼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재윤 대표가 ‘국내 이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주에 ‘이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주를 멀리 생각하지만, 누구나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주 유형을 목적으로 나눈다면, ‘결혼이주(결혼)’, ‘노동이주(일)’, ‘난민(보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런 목적의 다양성이 구분되지 않고 결국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겪습니다. 저는



결혼이주 여성과 난민 여성 모두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국가라서 결혼이주 여성은 정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보도도 많이 됩니다.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 정책은 결혼이주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비교적 잘 받고 있습니다.

난민 여성들은 출입국에서 가장 많이 차별받습니다. 난민인 것도 힘든데, 여성이면서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출신이면 더 많이 차별을 받습니다. 차별에 교차성이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과 15년 가까이 친구로 동료로 지내면서, 이들이 피부색 때문에 일상적으로 차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차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차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난민 여성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2세대입니다. 난민을 비롯해 이주민 2세대의 정체성 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신아**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에도 저 같은 재일코리안이 필리핀 혹은 브라질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본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정치권이 단일민족에 대한 보수적인 고집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 박하** 저는 대학생이 된 아이 둘과 초등학교 막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안전을 걱정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런 혐오를 감당해낼 수



김신아 / 일본 마이너리티 센터 운영위원

있을지 걱정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을 통해 혐오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김상덕(진행자)** 최근 늘어난 혐오 폭력 관련하여,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하시게 되나요? 관련 활동이 있으시다면 같이 소개해주세요.

**수 박하**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 또는 ‘쿵푸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중국인과 한국인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을때, 중국인처럼 보이는 모든 아시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차별에 반대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아시아·태평양계 AAPI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Stop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Hate’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6,603건의 혐오 범죄가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021년 3월 16일에 아틀란타의 마사지숍에서 일어난 사건은 미국 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사망한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이 ‘인종차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범인은 성중독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 혐오 범죄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은 물론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을 타깃으로 벌어진 이 폭력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이 사건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혜윤의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세계 밀쳐졌습니다. 젊은 흑인들이 아시아계 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의 비카 라타나팍디Vichar Ratanapakdee라는 태국 노인이 안토니 왓슨Antoine Watson이라는 19세 흑인 청년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제 친구의 딸이 라타나팍디 할아버지의 아들이 일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폭력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신아** 일본 헌법은 비교적 좋은 헌법입니다만, 이 헌법이 재일코리안을 법의 보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예로, 재일코리안은 아동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전에는 집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한국 이름을 말하면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이름을 갖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이름(통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일본 이름으로 취업을 했다가 호적이 없어서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외국인인 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 한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취직 차별 반대 운동, 외국인 지문 채취 반대 운동(일본에서는 범죄자만 지문을 채취함)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금씩 차별적인 상황이 개선되면서, 그것을 안 좋게 생각했던 일본인들이 지금 한협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재일코리안들의 지위를 마이노스(-)에서 제로(0)로 가져가는 운동이었는데, 극우 그룹은 외국인이 특권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입니다. 혐오 시위는 2014년과 2015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1년에 5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교토 조선학교 사건은 1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학생들은 여전히 PTSD로 외부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일본 국회가 <혐오 발언 해소법>을 제정했습니다. 긍정적인 움직임이었지만, 처벌이 가능한 법이 아닌 ‘이념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는 2019년에 <혐오 금지 조례>도 세웠습니다. 덕분에 혐오 시위는 못하게 되었지만, ‘가이센(街宣, 가두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제일당(Japan First Party)을 만들어서, 당의 이념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가와사키 다문화 아동시설인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 더불어사는 아이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가와사키시 시청 직원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혐오 금지 조례를 세운 시의 직원이 이런 혐오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레아이관 관장은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고 용감하게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는 해당 관장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먹고 죽어라”라는 혐오 발언이 담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관장은 5년간 1백만 건의 혐오 문자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소수자에 불과하다’는 격려 섞인 의견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범죄를 용납한다면 ‘이 정도 행위는 사회가 허용한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억제와 행정 정책만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숙** 코로나 때문에 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한국 정부가 제대로 치료해줄까?’라는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높아지면 소수자 차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실행했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그 예입니다. 당시 공적 마스크를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이주민은 자신을 증명할 신분증이 따로 없다 보니 마스크를 살 수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못해 마스크를 사러 나갈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긴급하게 마스크를 모아서 가정별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작년에 ‘멀지만 가까운 Far but Close’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난민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그 영향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난민들은 다른 이주민과 비교하여 학력이 높은 편이지만, 피부색 차이와 언어의 한계로 공장에서 가장 힘들고 안 좋은 일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난민이나 이주민을 가장 먼저 해고하고, 이런 현상은 난민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심리 치료와 생활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제주에 예멘 난민이 유입되었을 때, ‘난민 사태’라고 일컬을 만큼 전국적으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단 561명이 왔을 뿐인데, 미디어에서도 보도가 수십만 건 쏟아졌고, 가짜뉴스도 판을 쳤습니다. 아주 일부의 진실을 과대 해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561명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단 3명 정도만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지요. 근거가 약한 혐오는 굉장히 쉽게 발발할 수 있고, 공포심도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멘은 조혼 풍습을 가진, 비교적 조금 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15세 미만 여자 아이들에게 결혼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20-30대 여성들이 난민 수용 반대 청원과 의견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인권 의식도 가장 높고 후원이나 자원활동도 제일 많이 하는 세대인데, 무슬림 남성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과장된 공포 때문에, 한 사회가 휘청하고 말았습니다.

**박재윤** 혐오나 차별에 대한 표현이 누적되어 한계를 넘어서면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됩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단순합니다. 이민자 청소년이 철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경찰이 오니까 뛰었습니다. 경찰이 멈추라고 우발적으로 쓴 총알 때문에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프랑스 전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방화가 일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포럼이 예방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실 ‘다문화’란 말을 한국에서만 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너 다문화냐?”라고 묻습니다. ‘다문화’는 말 그대로 ‘멀티 컬처 Multi-Culture’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다문화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인이지만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다양한 문화가 있다’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이 대상화가 되어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면 역차별 아니냐’는 프레임, ‘한국에 온 너희가 한국을 배워야지’ 수준의 다문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희 단체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계 독일인 철학자 램 말(Mall, Ram Adhar)은 ‘오버래핑’겹침, overlapping을 말합니다.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분명 그 사이에는 겹침이 있다. 차이에 시선을 주기보다 공통 부분에서 시작하고, 서서히 겹침의 정도를 늘려가면, 낯선 것과의 거리는 좁아지고 나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장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참여자는 “이주 여성을 난민으로만 생각했는데 저희처럼 아이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어머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Hi 상호문화도시 서울!’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주민들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 도시를 ‘상호문화도시’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산시가 한국에서 처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모인테르네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옹기종기 상생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통합을 시작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김상덕(진행자)** 혐오 폭력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 쉽게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간혀있는 패러다임이 있다면 무엇을 꼬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 박혀 / 'ReconciliAsian' 공동대표

**수 박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반대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표적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겹침’을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질수록 서로를 비인간화하고 폭력의 표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미국은 인종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납니다. 인종차별주의(racism)를 일본이나 한국의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인 우월주의라는 구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화된 역사를 보면 인종차별주의는 여러 인종 집단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아인들은 전쟁과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마화되고 동양화(orientalized)되었습니다. ‘황색 위험(黃禍, Yellow Peril)’, 혹은 ‘황색 문제’로 불렸지요. 1890년대에 중국 이민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미국 사람들은 중국 이민자들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극단에는 아시아인들을 ‘모범적인 소수인종(Model Minority)’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민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부터 ‘정말 위험한 사람’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오가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92년에 LA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로드니 킹(Rodney King)이라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경찰의 폭력에 집중하지 않고 흑인과 한국인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켰습니다. ‘분열시키고 통치하라(Divide and Conquer)’라는 전략이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의 폭력, 백인 우월주의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노인을 공격하는 젊은 흑인’이라는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물론 소수 인종 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다루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재화된 인종차별주의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백인 우월주의를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다룰 수 있을까요?

저희 단체를 포함하여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폭력의 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통치하라’는 게임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지만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신아** 미국에서 일어나는 백인 우월주의처럼 일본도 구조와 연결된 혐오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향을 살펴보면 혐오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아보았습니다. 하나는 ‘불안’입니다.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일어난 ‘이민’ 현상이 일본에서는 일자리 경쟁으로 발화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급증하면서 불안도 커졌습니다. 또 하나는 보수 언론의 영향으로 봅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선에 진출했지만, 일본은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혐한 현상이 그때를 계기로 조금씩 드러났다고 분석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국과 중국을 혐오하는 보수 잡지가 많이 팔렸습니다. 흑자는 일본이 자기 정체성을 잃는 과정과 보수 잡지 판매율이 비례한다고 분석합니다. ‘응보적 정의’, 즉 법적인 역제로만 혐오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학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 ‘회복적 정의’를 제안합니다. ‘회복’에는 그리스어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혐오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이야기의 부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이야기가 없다. 자기가 선택한 이야기 외에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본에도 적용됩니다. 일본 청년들은 자유를 ‘소니 제품을 선택하느냐 파나소닉 제품을 선택하느냐’ 정도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야기는 주로 말하는 쪽을 조명하지만,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행위가 일본에서는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혐오의 가장 깊은 원인은 듣고 말하는 상호 행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도 그렇죠. ‘만남’이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 만남이 아니라, ‘아픔과의 만남’ 즉, 아픔을 만진다는 경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위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전쟁이 특수수요를 가져왔다고만 가르칩니다. 1950년에 발생한 특수수요 덕분에 황폐화되었던 일본이 196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한 쪽의 아픔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트로폴로지(Anthropology)’와 ‘후마니타스(Humanitas)’입니다. 대학의 인류학과에서는 둘을 완전히 구별해서 씁니다. 이 개념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트로폴로지는 미개하고 뒤떨어진 사람을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권리를 쟁취하자 혹은 마이너스를 제로로 변화시키자는 움직임은 특권이라고 봅니다. 일본인은 후마니타스고 외국인인 안트로포스라는



박진숙 / '에트랑제' 대표

시각이 일본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혐오를 낳는 또 하나의 근본 원인입니다.

**박진숙** 혐오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아 보았습니다. 첫째, 단일민족주의의 폐해입니다. 민족주의는 어디나 존재하지만 ‘단일민족주의’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지만 ‘뺏 속에 새겨진’ 느낌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한국인들은 차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도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나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챙길 여유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생명(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벼락거지’ 등의 유행어도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칭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SNS로 인한 자극적인 언어 습관도 한몫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이 대세를 이루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언어와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어야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핵노잼, 핵꿀잼, 개좋아, 개싫어, 극혐’ 등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됩니다. ‘극혐’은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그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표현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서로의 언어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덕(진행자)** 혐오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혐오가 폭력화되는 문화를 사라지게하는, 또는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문화적/개인적 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 박희** 회복적 연대restorative solidar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의 좋은 친구이자, 학자이며 실천가인 엘레인 엔즈Elaine Enns와 채드 마이어Chad Meyer가 사용한 개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복적 정의’와 서로의 다름을 넘어선 공동 관심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를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이 당신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는 너의 잘못은 아니다. 너의 책임이다.”라는 니키 산체스Nikki Sanchez의 말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땅의 연결, 피의 연결, 노래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땅의 연결’은 우리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향하는지에 주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금 살고 있는 LA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피의 연결’은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내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족은 생물학적인 가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사람들인가? 누가 ‘우리’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가?’ 여기에는 내가 무엇을 물려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의 경우 아나뱃티스트라 신학, 여성신학Womanist Theology, 특히 흑인 여성신학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학의 지평들이 제가 연결되고 싶은 피의 연결입니다. ‘노래의 연결’은 단순히 노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어떤 실천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발제자께서 트라우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트라우마에서 자유롭게 하는 전통을 발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시와 노래가 회복적 연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 모든 연결이 탈식민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라서 미국의 식민지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민지 역사도 잘 모릅니다. ‘누가 나의 원수인가? 누가 나의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신아** 혐오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crowd는 있지만 서로 간의 연결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SNS를 통한 ‘각자 연결’만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연결은 고립을 만듭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고립은 피해야 하지만, 고독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다른 말로 ‘재산’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만날 때 어느 쪽이 듣고 말하는지 감각하는 조용하고 멈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연결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과 시간이 일본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혐오와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박진숙**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먼저 공적 영역에서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한국 교과서에도 ‘이슬람’이나 ‘난민’을 다루지 않습니다. 모르는데도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혐오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교육에 이슬람, 난민, 동성애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우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주제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의 경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받아쓰기 하듯 보도하기보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적 영역에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 무조건 ‘싫다’고 이야기 하기보다, 잠시 판단을 미룰 필요가 있습니다. 싫은 감정, 특히 혐오 감정은 개인이나 사회에도 결국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떠한 이슈를 더 알아볼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판단을 멈추고 ‘싫어하는 감정’으로 흐르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박재윤**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 한국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답을 강요하고, 정답을 찾지 못하면 틀렸다고 하는 교육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쟁 사회도 평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혐오를 정서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대상의 한 면만 보는 거죠. 그것이 구체화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면 차별, 혐오, 증오 범죄, 학살로 이어진다는 것이 ‘혐오 피라미드’입니다. ‘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정보가 과다한 사회에서 고정관념은 당연한 뇌의 매커니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지?’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순간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서지능’입니다. 플루치크Robert Plutchick의 ‘감정의 수레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감정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지루함으로 시작된 것이 점점 억격움이나 혐오로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생기면 감정의 증폭이 멈추거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혐오, 분노, 비탄과 같은 감정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 왜 올라오는 거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소모적인 것이 아닌 정서 지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버트 플루치크Robert Plutchick의 감정바퀴Emotion Wheel





박재윤 / '호모인테르' 공동대표

또한, 차이와 다양성은 다릅니다. 차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다름'을 나타내는 현상을 뜻하지만, 차이에 존중의 태도가 담기면 다양성이 됩니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을 '개인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처럼 개인이 다를 권리(right to be different)를 존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개념은 인종, 민족, 성, 성적 성향, 지위, 나이, 능력, 종교, 신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가 상호문화대화(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이야기해 나가는 대화의 방식)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을 존중하며 겹침의 영역을 더 넓혀나가면, 혐오를 줄이고 평화를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라인 참여자 질문 1. 한국계 미국인이 인종차별이라는 구조 속에서, 인종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 박허 우리 자신도 인종차별주의를 내재화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구조를 학습한 사람 머리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위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권력 구조를 생각해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아시아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변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아래에 위치한다고 답합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겨루는 방식은 '분리하고 통치하라'는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거듭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저와 친한 흑인 여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백인우월주의를 해체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지. 하지만 내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가면, 직원이 나를 계속 따라다녀. 내가 목사인데도 물건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면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주류를 파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게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덩치가 큰 흑인 손님이 오면 무서웠습니다. 정신적 내상을 남기는 경험을 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먼저 구조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고 함께 애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 온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차별에 권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지만 그

차별을 사용할 막강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 수는 있지만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이것은 구조이자 관계입니다. 증오와 인종차별이 만나면 막대한 영향력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서부터 인종차별에 맞선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연대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인 관계 맺기도 한 방법입니다. 스펙트럼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우정이 무엇인지, 여성들의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주 혹은 격주로 경계를 넘어서는 만남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 식당을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흑인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한층 깊은 대화와 활동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세우고, 인종차별과 증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자 질문 2. 한일 양국의 양심적인 시민들 사이의 연대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신야 몇 년 전 한국의 촛불시위와 일본을 비교하며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놓는다는 몸짓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연대'라는 말이 어울릴지 의문이 듭니다. 통일운동가 정경모가 창간했던 <씨알의

힘>이란 잡지가 있었습니다. '씨알의 힘'이란 것이 일본에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몇몇 진보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류회를 개최하자'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면 히로시마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완전히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전혀 피해자가 아닌데, 이런 맥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대'를 어느 차원에서 기획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학회를 열었다고 그것으로 연대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씨알 하나 하나가 민중으로서 힘을 갖고 혐오와 다른 언어를 주고받고 듣는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질문합니다. 저는 거시적 차원보다는 미시적 차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동성명을 만들 때도 서로 어떤 언어를 주고받았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행자(김상덕)** 이번 기회로 혐오와 관련된 다양한 감정 및 사고방식과 함께,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사회구조적 배경들을 더 깊이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이 포럼이 혐오 문화가 평화로 전환되어 가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 국방비,

# 이제는

# 다르게

# 써야 할 때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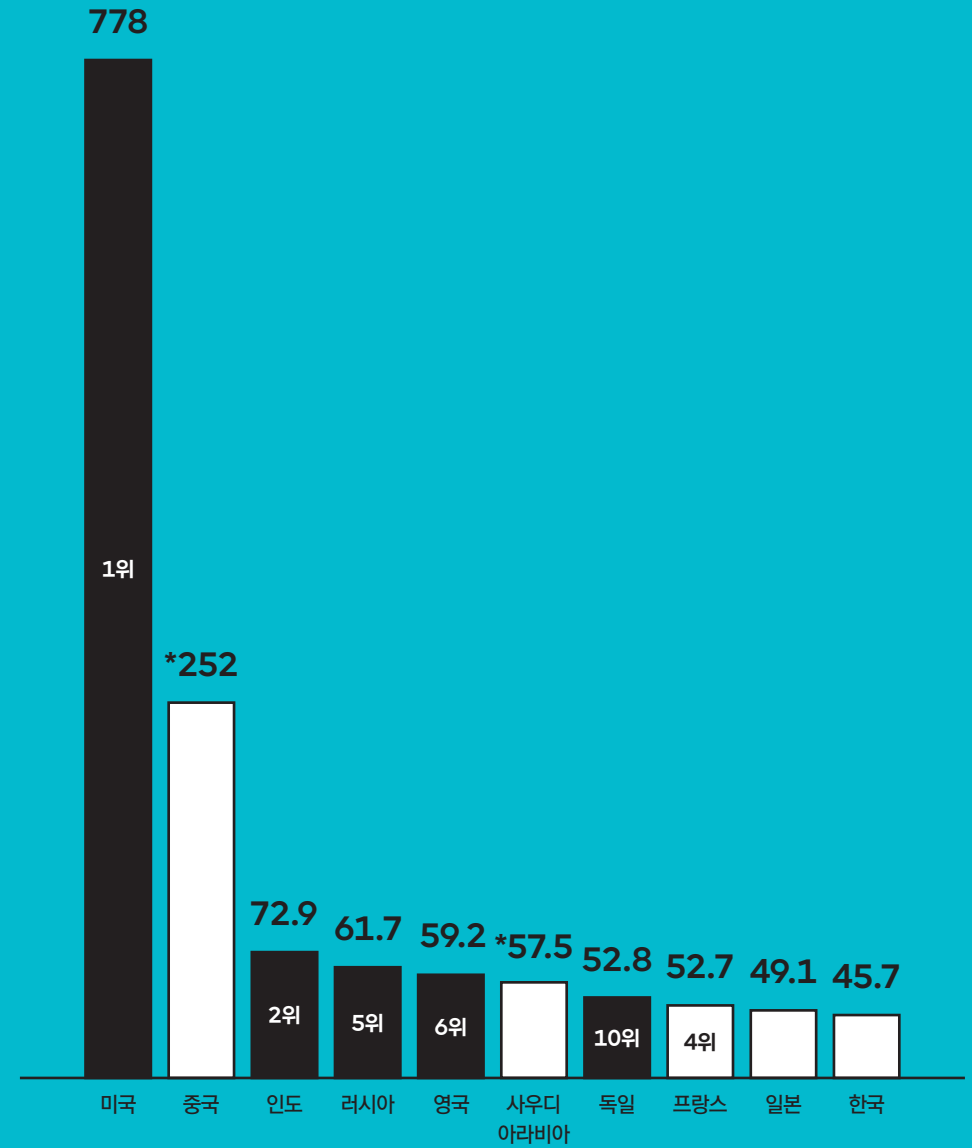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2021년 5월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1억 6천만 명, 사망자는 약 336만 명에 달한다. 세계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폭염, 장마는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치솟는 군사비는 변함이 없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에 달한다. 군사비 지출 상위10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곤 모든 국가의 군사비는 증가하였다.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군비를 증강하면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2020년 전 세계 군사비지출 현황

출처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0>, 2021.4.27  
\*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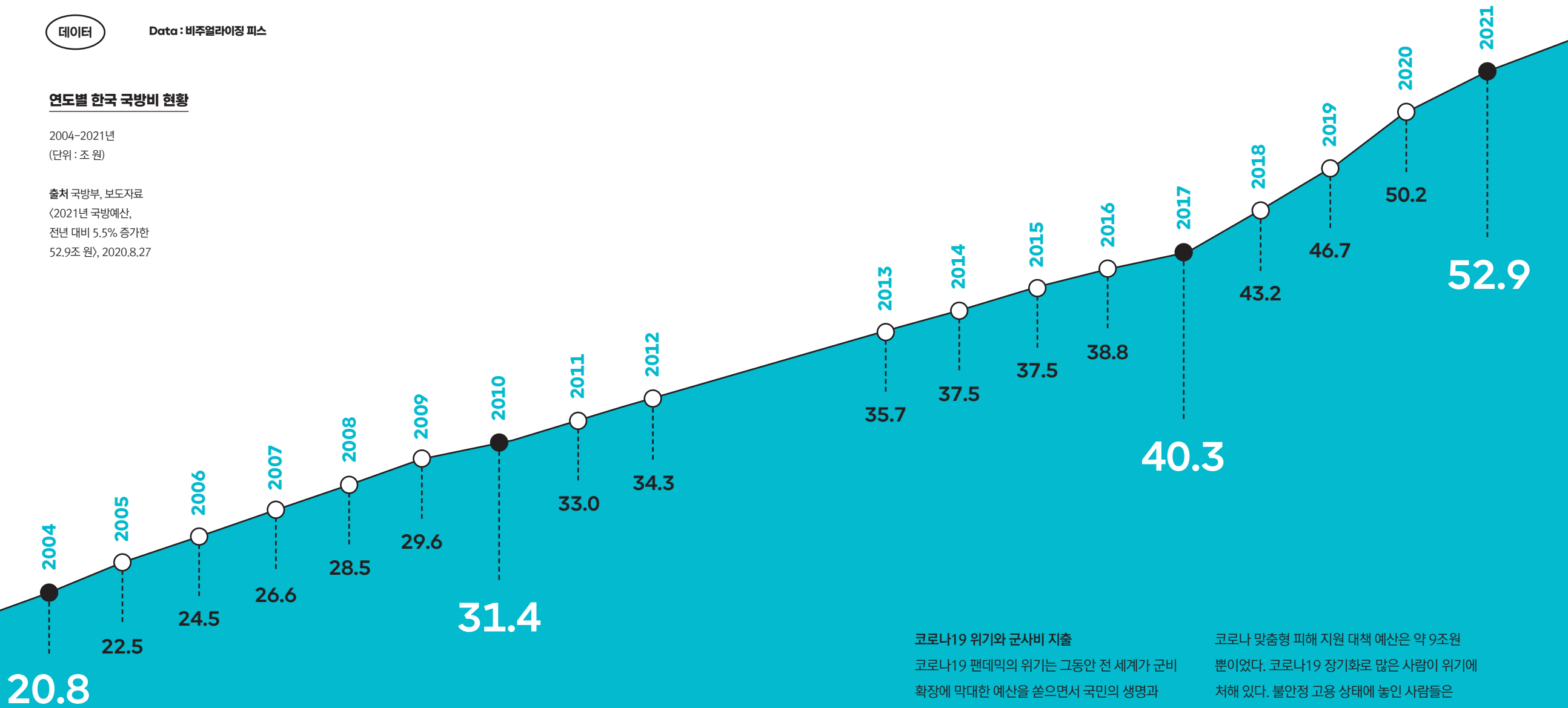
● 핵보유국  
단위 군사비(십억 불)  
순위 코로나19 확진자 수



연도별 한국 국방비 현황

2004-2021년  
(단위 : 조 원)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2021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 원), 2020.8.27



미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5월 17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약 58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 상위 10위 국가 중 미국,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군사비 지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이며, 핵보유국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국가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씩 증가해 온 국방비는 2021년 52조 8,401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와 군사비 지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는 그동안 전 세계가 군비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시해왔던 현실에 물음을 던졌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과연 무엇인가? 최첨단 무기와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가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는 동안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줄어들었다. 정부는 2021년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책정했지만,

코로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산은 약 9조원 뿐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실업에 내몰리고,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의료 자원의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문제는 커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초유의 재난 위기 상황에서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어렵게 맺은 '단계적 군축' 합의 이행해야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정부는 지속해서 국방비를 늘려왔다. 이에 더해 경향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신규 무기체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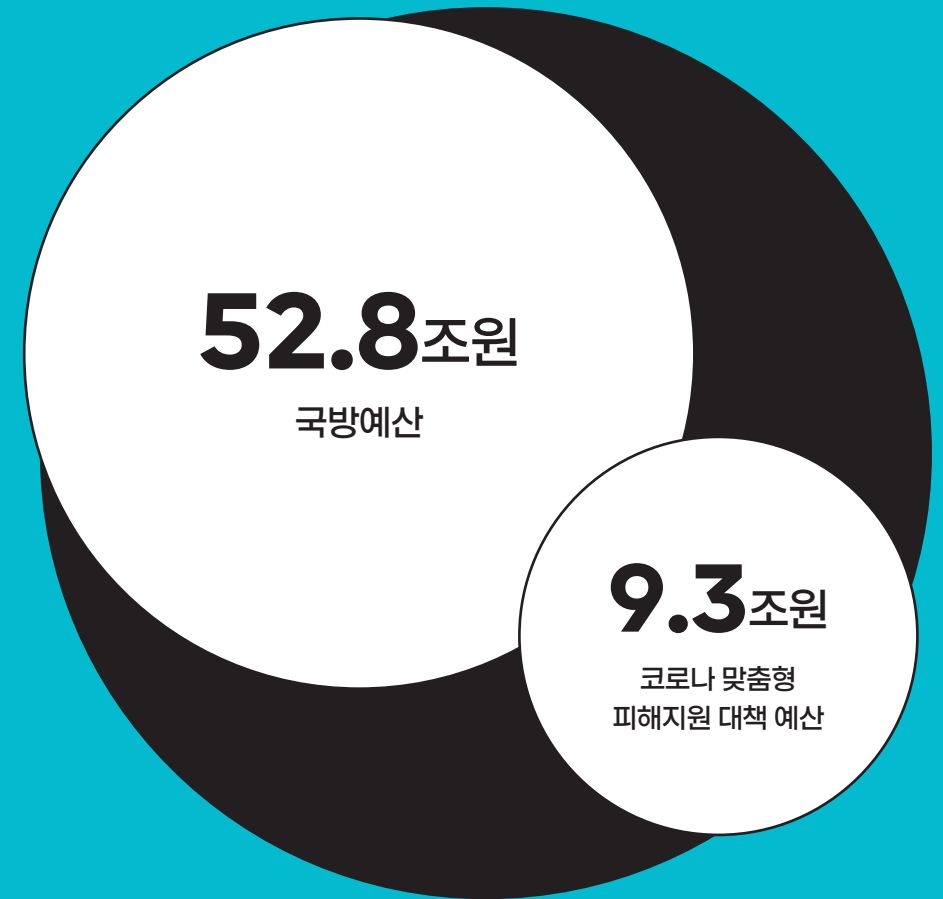
이러한 군비 증강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이상의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국방비 증액부터 중단하고 남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참고로,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편성되는 남북협력기금은 2021년 약 1조 2천억원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제는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P

우리의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2021년 기준)



한국의 현주소

52조 8,401억 원

2021년 국방비

OECD 최하위

OECD 38개국 중 35위(2019년)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남북협력기금

군사비 지출

세계 7위

무기 수입

세계 10위

1조 2,000억 원  
(2021년)





## 상처를 건강함으로 전환하는 회복적 도시를 짓다

인터뷰이 서정기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대표  
사진과 글 정리 김복기

**안녕하세요? 먼저 4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저널 플랜P>에 자신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저의 정체성에 들어있는데, 우선은 '회복적 정의 실천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복적 정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하며 갈등조정 진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공부하던 중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겨 박사과정에서 문화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인류학이 전공인데, 학교폭력을 연구하고, 학교에 존재하는 폭력 문화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체성은 '교육가'입니다. 교육가로서 '어떻게 회복적 정의와 평화를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적 정의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배운 가치들을 내면화시키도록 돕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는 교육가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 제가 하는 일이자 에듀피스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활동가로서, 연구자로서, 교육가로서의 정체성이  
있으시다는 말씀이군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인류학을 전공한 질적연구자로서, 현장의 경험, 무엇보다 주관적 경험을 찾아내고 그것이 가진 힘과 목소리들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듀피스를 굳이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이런 관심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평생 공부하도록 배려면서 연구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를 연구답게 하되 현장과 괴리된 연구가 아니라, 실천가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즉 회복적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지역사회와 마을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전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키워드는 POW, 즉 '전쟁에 사로잡힌 우리의 일상'입니다. 4호가 출간되는 6월은 6.25전쟁이 있었고 7월에는 정전협정일이, 8월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남북분단 상태로 살아와서 우리도 모르게 전쟁에 사로잡힌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OW라는 단어가 트라우마를 공부하신 대표님께는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저는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라서 POW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트라우마에 싸여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문제는 물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POW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 사건은 그 자체로 폭력이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가에 의해 문제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폭력의 순환고리 안에서 이념적 대립을 만들고 서로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혐오를 만들어 레드 콤플렉스를 반복해 온 것이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이자 방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방안의 코끼리<sup>elephant in the room</sup>”입니다. 내 방에 엄청난 코끼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코끼리가 거기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혹은 알아도 모르는 체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즉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조차, 그 영향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생각해보니 저에게 존재하지만 알지 못하는 ‘코끼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활동으로 경찰에 쫓겨 다니던 사촌 형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활동에 항상 열심이셨던 고모님, 결혼 주례를 봐주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훗날 방북과 함께 통일운동에 관여하시면서 문목사님을 염려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대학에 들어간 누님이 들려준 분단과 통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 화목했지만 이념적 갈등과 지역감정에 자유롭지 못했던 친척들, 대학에 입학하고 기독교생회<sup>SCA</sup>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양심수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참여했던 시간들, 그리고 양심수로 오랫동안 수감되어 계셨던 선배님을 면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가졌던 의문들, 이런 일들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아오면서 겪은 소소한 일상의 사건들을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전쟁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20대를 살면서 가장 극명했던 기억은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 어떤 설렘보다는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과 두려움, 정상적인

감정을 압도하는 낯선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좌우에 총을 멘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건가?’ 하는 질문이 솟아올랐습니다. 개성공단을 출입하기 위해 방문 허가증을 받았는데, 북한에 다녀온 게 기록에 남으면 외국에 못 나간다는 우스갯소리에 ‘정말인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 북한 영토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시간을 보냈지요.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여권 외의 별도 용지에 출입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나올 때 그 용지를 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왜 그래야 하지?’ 괜히 걱정되고 꺼림칙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도 모르게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교육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순간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평화교육을 하면서 갈등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많이 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님에게 혼나는 그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갈등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친구와 싸운 그림보다 전쟁, 탱크, 미사일을 그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트라우마를 공부하면서 ‘공통충격<sup>common shock</sup>’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안에서 다양한 폭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탄압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 호황기와 88올림픽이 열렸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입니다. 전쟁이 익숙하지 않은 X세대였는데도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세대로 이렇게 전쟁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나아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분단이 만들어 낸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시도조차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는 세대 간으로도 전이된다고 합니다. 식민지배, 독재정권, 권위주의적 삶의 모습 등이 우리 삶을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을 간과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아닌 평화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지향해 간다고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연구 및 활동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꼽으라면, 서울로 처음 이사 와서 전학을 한 국민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학교 안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어렸던 제게 가장 강력한 부정적 기억은 '존재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당시 가고 싶지 않은 졸업식에 억지로 끌려가듯 참석했지만 다 같이 찍는 졸업사진은 도저히 찍을 수 없어서 그냥 식장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없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평온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갈등해결과 평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잊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기억들이 강렬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트라우마가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2008년에 미국 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교에서 하는 평화훈련을 받을 때 트라우마 수업을 접했어요. 당시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 회복적 정의를 배우기 위해 참여했던 것이지만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수업은 트라우마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평화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라우마와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계속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그 무렵 한국에는 트라우마를 다루던 수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담학, 심리학 책을 찾아보았는데 트라우마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구하기 어려웠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이스턴메노나이트대학교에서 만든 '스타' (STAR, Strategies for Trauma and Resilience)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타'는 평화학, 갈등전환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통합해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응서, 화해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해 오랫동안 자료와 훈련의 기회를 찾다가 결국 STAR 트라우마 수업을 받으러 갔던 거지요. 당시 잊히지 않는 기억은, 트라우마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세월호 소식을 듣게 된 것과, 미국에서의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수업 과정 중에 세월호 이야기를 나누자 수업을 함께 들던 이들이 저를 위로하고 보듬어준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트라우마 교육들이 트라우마를 병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뿐 공동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공부한 'STAR 프로그램'이 공동체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 새삼 큰 의미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상담학에도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화 된 나 자신의 기억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박사논문을 쓰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픈 기억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갖고 있는 힘과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두려움에 갇혀 있던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됨으로써 사건이 남긴 충격과 고통의 기억이 억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피해를 부정당했던 이들이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와 인정을 받고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다시 세상에 연결되어 갈 때 제가 지녔던 상처들 또한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폭력에 압도당하고 가해자의 논리에 갇혀 자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던 이들이 대화모임을 통해 제 목소리를 찾고 자기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욕구를 채워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꿔가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일 수 있구나!'를 깨닫고, 그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트라우마 치유의 의미와 가치를 동시에 연구하고 싶었는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강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후에 트라우마 붓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무료로 온라인 기초과정도 제공하고 있고, 트라우마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듀피스에서 1년에 두 차례 각 3일간 트라우마 워크숍을 열어, 참여자들이 치유의 대상이 아닌 치유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치유자로 세상에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와 역량을 만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그간 우리나라에 트라우마 센터가 몇 군데 생겼습니다. 세월호를 비롯해 4.3 혹은 5.18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같이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약물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개인적 작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가족들에게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배제한다면 치유는 온전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18 생존자들에게 누군가가 '5.18은 북한에서 공무원이 내려와서 일으킨 것이다' '그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비난한다면 결코 치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도 피해자에게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왕따를 당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거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을 당한 교사에게 "당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트라우마적 사건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충격과 병리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제대로 치유하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트라우마적 사건이 치유되지 못한 채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깊은 상처가 되고, 나아가 역사적·집단적 트라우마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가 트라우마를 다루어나가는 회복탄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치유 작업에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갈등과 상처에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 집단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의료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존재의 어려움을 공동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 혹은 개인을 떠올려볼 때,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트라우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회복적 정의'가 개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최적화된 과정이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행기 정의로서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폭력에 의해 엄청난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던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응징과 보복으로 일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이행기에 어떻게 정의를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회복적 정의 개념을 붙여넣은 것이지요. 이것은 당사자들이 만나서 함께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트라우마적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안은 채 자신도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쟁 이후 이념과 갈등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생각해보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처벌하는 것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피해를 치유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지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보다 진실을 밝히고 가능한 화해로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적 정의'란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가고, 인정받고, 그것을 충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트라우마 치유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평화적 관점에서 치유의 원리, 돌봄, 화해, 용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평화적 접근과 회복을 위한 여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용서, 치유, 화해'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용서에 대해 어른에게든 아이들에게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용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 용서를 종용하거나 강요합니다. 부모님의 훈육,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요구, 또는 선생님의 지시 등 제3자의 필요에 따라 용서를 강요당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치유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의료적 지식만 아니라, 평화학적 관점, 갈등해결, 인권, 존엄, 공동체적 관점 등 다차원적 관점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적 힘을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회복을 위한 이러한 필요들이

충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회복적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회복적 시민이 된다는 것은 회복적 정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즉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해결하고, 치유와 돌봄, 용서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복적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 트라우마는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교육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개개인이 실천가이자 활동가이자 회복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나와 타인의 삶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평화활동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화적 시민이자 회복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잘못이 생겼을 때 '응보'의 관점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에서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건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 아픔, 깨어진 관계나 토대, 가치들을 함께 돌보고 치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에듀피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 명이 넘는 국가피해 생존자가 있다고 합니다. 4.3 사건이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국가폭력을 부당하게 겪었던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고문 피해자에 대해 연구하시고 이를 회복하려는 분들도 있고, 관련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처와 고통이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투 운동'만 보더라도 그동안 숨겨왔던 폭력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를 드러내는 반증입니다. 최근 갈등조정자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안을 접하면서 교권 침해로 당하신 선생님 관련 두세 건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상황과 전혀 양상이 다름을 느낍니다. 교사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이 엄청 큰데, 이러한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조정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서 사안은 다뤄지겠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즉 교육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기는 어렵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라는 현장, 일상의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교사들은 엄청난 감정노동,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삶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도 힘들지만 공동체의 돌봄과 지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적된 상처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처가 갈등이나 폭력을 만났을 때, 아주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갈등을 다루거나 헤쳐 나갈 힘조차 없는 이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도 그런 존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겪는 실존적 고통을 이해하지 않은 채, 누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것에 힘들어 하느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 거대한 사건이나 고통 앞에 비교적 작은 고통은 그 자체로 쉽게 '별일 아닌 것'이 됩니다. 일상화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작은 트라우마와 큰 트라우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죽음에 직면한 고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고통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우리 뇌는 똑같은 트라우마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겉에서 보이는 문제의 크기 혹은 내가 생각하는 사안의 심각성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가려진 고통을 발견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트라우마 연구는 객관적으로 큰 사건만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인 경험도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개인이 경험한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드러나지 않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견해내고, 그들이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경험하고 스스로 회복의 과정을 이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는 아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히려 사회는 어떤 사건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소외시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열고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라우마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인간은 깨지고 무너지고 일어나면서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평화교육은 그런 과정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교육입니다. 개인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평화의 방식을 체험하고 살아내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에듀피스' 이름 앞에 '회복적 정의'를 뺄 수 없었던 것은, 관계 중심의 교육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는 평화교육의 완결판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통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연대하고, 살아가는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철학이 이러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평화를 배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의료적 지식만 아니라, 평화학적 관점, 갈등해결, 인권, 존엄, 공동체적 관점 등 다차원적 관점으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회복적 정의,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를  
현장감 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한 대표님이 있기까지 영향 받은 사건,  
사람, 사상 등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집에는 신학을 한 사람이 6명이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동지사에서 신학공부를 하셨고 다양한 신학자들과 교류하셨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신학을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큰고모님도 신학을 하셨고, 저는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선생님 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알츠하이머를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제가 가졌던 고민들을 나누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 저와 제 누님도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 아버지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신학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교단신학이 아닌 연세대에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만나서 세계교회협의회와 연결되었고 스위스 보세이 학교에 가서 1년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전 세계 다양한 교단, 연령, 인종이 모인 곳에서 공부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에큐메니컬 개념, 특히

평화의 개념과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신앙의 방향을 잘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을 하면서 가장 큰 질문은 '예수란 누구인가?'였고 관련된 책들, 예를 들면 안병무 교수님의 《갈릴래아 예수》, 엔도 슈사쿠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의 생애》,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을 읽으며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왕따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관계 실패의 아픔 혹은 트라우마로 다가왔으며, 그때마다 역설적으로 치유의 경험을 했습니다. 아울러 박사과정을 하면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여전히 되어감(Becoming)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에듀피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극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길을 찾아가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활동 및 운동 측면에서, 향후 10년 뒤 보고  
싶은 이상적 모습이 있다면? 이를 위해 평화  
활동가들에게 부탁 혹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기 돌봄과 공동체의 돌봄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온전히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존하기 위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술, 용서와 화해를 배우고 트라우마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평화운동가, 적어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듀피스가 성남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고 치유하는 성남 지역사회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에듀피스가 시작하면서 품었던 생각이 '회복적 마을 또는 회복적 도시'라는 지역사회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힘을 가진 도시를 상상했었습니다. 한 도시를 주 모델로 만들고,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갈등과 상처, 트라우마를 회복해나가는 공동체적인 힘, 집합 효능감을 길러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는 곳, 제가 학창시절을 보냈고, 가장 잘 아는 곳에서 회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꿈입니다. 캐나다의 랭리, 아보츠포드처럼 우리나라에도 전국 228개 시군구마다 회복적 정의 센터가 세워지고 건강한 도시의 모습을 지역에서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며 함께 어울려서 각자 영역에서 펼치는 운동들이 일상의 삶으로 수용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즉 문화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적을 떠올리거나 곧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보자"라며 상대를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험하고 진행할 풀뿌리 센터들이 이곳저곳에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 교육을 통해 모두를 성장시키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며 꿈을 키워가는 것,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에듀피스가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는 도전이자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저널 플랜P>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잡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 작은 책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광고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잡지를 발행하지? 어떻게 생존하지?'였습니다. 생존을 넘어 가치를 확산하는 일이니만큼, 앞으로 좋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잡지를 읽으면서 평화는 운동가의 일이 아니라, 일상을 평화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평화라는 큰 틀 안에 모두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잡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P

평화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온전히 함께  
공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미안해요 베트남”, 새로 쓰는 전쟁의 기억



한베평화재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죄와 성찰을 통해 굴절된 전쟁의 기억을 바로잡고, 궁극적 평화로 나아가고자 2016년 9월에 창립된 비영리 평화운동 단체이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한베평화재단은 재단 산하의 피스북스(peace books)와 한 공간에 자리하지만, 각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평화의 시너지를 배가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민감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치열한 분투와 더불어 일상 속 평화 감수성을 만들어가는 재단의 다양한 노력 속에, 옥수동은 조금씩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일까? 옥수동에 내려 재단을 찾아가는 길, 걸음마다 봄꽃 향기 가득한 평화가 묻어났다. 평화의 걸음으로 도착한 피스북스에서 붉은 오미자 에이드 한 잔을 마주하고, 석미화 사무처장님이 들려주시는 ‘더욱 붉고 진한’ 베트남 전쟁의 진실과 화해, 평화의 이야기에 한껏 빠져들었다.

인터뷰이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사진 김가연, 한베평화재단 제공  
글·정리 김유승

## 이기치 못한 발단, 한베평화재단이 설립되기까지

### 한베평화재단은 어떤 과정으로 설립되었나요?

1999년에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한 기획기사가 <한겨레

1. 구수정 통신원은 자신이 직접 취재한 내용과 미국의 민간인 보고서를 종합해 2000년 ‘제주인권학술회의’에서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에 따르면 베트남 중남부 5개 성에서 80여 건의 학살이 이루어졌고 모두 9천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21>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베트남에 유학중이던 한겨레 통신원 구수정 선생님(현 한베평화재단 이사)께서 린선사 학살 피해마을을 대상으로

2. 김민웅 기자는 미국의 웨이코고도 마이클 존스 부부가 작성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례에 관한 보고서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베트남 현지 보고 Allies Called Koreans-A Report from Vietnam’를 바탕으로, 당시 미국의 우방이라는 명목으로 침략 전쟁에 개입한 한국군의 실상 이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직접 르뽀 취재하신 것인데,<sup>1</sup> 늘 피해의 역사만을 배워오던 한국인들에게 가해의 역사에 대한 폭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기획기사가 연재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모인 1억 5천만 원 가량의 성금을 바탕으로 베트남 푸옌성에 ‘한베평화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최초 보도는 1990년 7월에 발간된 월간 <말>에 실린 재미언론인 김민웅 기자의 보도였지만,<sup>2</sup>

그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확산되지 못했다가 1999년 <한겨레 21>의 보도를 계기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났고, 그와 더불어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항의 시위도 매우 격렬하게 일어났었죠. 그 과정에서 베트남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 속에 시민사회 단위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의 이름으로 1968년도에 일어난 ‘퐁니퐁넛 학살 사건’과 관련된 미국의 해제된 기밀문서를 찾게 되는데, 그 문서들은 사진 자료뿐 아니라 보고서 현장을 목격한 미군들의 인터뷰까지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였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겨레신문 고경태 기자가 퐁니퐁넛 학살 사건을 계속 추적하여 2015년에 《베트남 전쟁 1968년 2월 12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1999년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 이후 다양한 차원의 관심과 노력들이 이어지다, 2000년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문명금, 김옥주 할머니께서 자신들이 역사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한국으로 인해서 역사의 피해자가 된 베트남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거금의 후원금을 기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동안 진실규명 활동을 벌여 온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해소되고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라는 하나의 단위 안으로 이전의 활동과 역할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박물관’이라는 단체를 통해 베트남과의 평화교류활동과 다양한 평화 관련 사업들이 이어져 오다 평화박물관 내부 문제들로 그러한 활동들이 중단됩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 전쟁의 진실규명 과제에 보다 집중하고, 더욱 본질적인 평화의 문제로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로 2016년 지금의 한베평화재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 준비된 인연, 제주 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이사장으로

#### 강우일 주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데, 처음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016년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진이 오래전부터 베트남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강우일 주교님께 재단 이사장을 맡아 주십사 요청을 드렸죠. 나중에 주교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떼로 물려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요. 아마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에 강우일 주교님이 ‘내가 만난 베트남’이라는 스토리 편당에 글을 써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강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만났던 베트남 친구들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들에 대한 깊은 연민, 2000년대 들어와 국내외 자료를 통해 베트남 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이야기를 접하면서 받았던 엄청난 충격 등이 있으셨고요, 2012년에 아시아 주교회의 참석차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는 한국 천주교인을 대표하여 한국 군인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표하셨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주교님이 어떠한 경험과 기억들을

토대로 한베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되셨는지 잘 알 수 있죠. 또한 자신에게 운명과도 같았다고 말씀하셨던 제주행을 통해 제주 교구장과 강정 성프란체스코 평화센터 이사장을 겸임하시면서 제주 4.3의 역사를 배우고, 그에 관한 평화의 성찰이나 베트남전과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이 더 깊어지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베평화재단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2017년 제주 강정마을에 ‘베트남 피에타’를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으로서는 정말 기둥 같은 존재이시죠.

### 운명 같은 이꼴림, 경험과 성찰이 길을 이끈다

#### 사무처장님께서 재단에 함께하시게 된 과정과 이유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베평화재단에 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평화박물관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박물관에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몇 차례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 평화교류 활동이나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고, 평화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전 문제를 보다 중심에 놓고 가는 새로운 재단 구성에 대한 논의와 설립이 추진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한베평화재단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계기에 앞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제 외삼촌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들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군의원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경험들이 저를 인권과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40대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삼촌은 경제력도 없고 늘 술을 먹고 가족들을 괴롭혀 가족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다 외숙모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아무도 삼촌 임종을 보지 못한 채로 이웃이 발견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삼촌은 월남어 통역병으로 참전을 하셨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삼촌, 그러니까 오빠의 모습은 월남에 가기 전과 후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술을 먹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고, 글씨를 아주 잘 쓰며 굉장히 자상했던 오빠였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오빠는 많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 누구도 삼촌이 그렇게 된 것이 전쟁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군의원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삼촌이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 부적응으로 그렇게 쓸쓸히 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짐작을 할 뿐이었죠.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보니 ‘군의원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대부분이 자살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건을 들여다보면 자살의 원인이 대개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군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이유로 그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 ‘신체부검’이 아니라 고인의 성격이나 그가 처했던 상황, 관련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찾는 ‘심리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가 소견을



통해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저는 그러한 활동을 경험하면서야 비로소 외삼촌의 트라우마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의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참전군인 가족들 중에는 아마도 여전히 전쟁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역시 참전군인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이군인이나 고엽제 피해 군인에 대한 보훈 혜택은 있지만 그 외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국가적인 배상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에 못지않게 참전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우리가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단지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 임진왜란보다 더 길었던 전쟁이었고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참전한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참전군인들과 참전군인 가족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전쟁이고, 우리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전쟁 개입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20년 전쟁(1955~1975)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길게는 30년 전쟁(1945~1975)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긴 전쟁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1964년 9월 비전투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 3월까지 연 인원 5만여 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무려 8년 6개월 동안**

**전체 규모 약 32만 명의 병사를 파병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에서조차 베트남전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던 만큼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미국의 패배로 끝나게 되고, 한국에서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경제논리로만 정당화될 뿐 정치적인 이유에서 억압되어 왔고, 그에 따라 점차로 잊혀왔다. 그 사이 전쟁의 상흔은 오롯이 개인화되었으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의 참혹한 진실도 감춰졌다. 하지만 치유되지 못한 상처와 가려진 진실은 안으로 쫓아 들어가며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고 만다. 한베평화재단은 이렇게 개인에게 전가된 채 공동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가는 전쟁의 깊은 상흔들에 주목하고, 그것이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 속에 건강하게 치유되어 평화의 기억, 더 큰 평화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의 감수성, 진정성을 담은 평화 활동으로 답하다**

**베트남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학술 연구나 아카이브 작업, 한국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작업이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의 기록은 군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이 너무 군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전



2018년에 열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참전유공자가 19만여 명 정도 됩니다. 19만 명은 유공자 등록 숫자가 아니라 생존해 있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현황입니다. 그 참전군인 한 분 한 분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런 개인의 기억들에 대한 구술 기록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고, 베트남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지원이라든가 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재작년에 '미안해요 베트남' 2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현재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것도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조건상 민간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또 시의를 다루는 작업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 대부분이 2000년을 전후로 구수정 선생님이

수집하고 발굴하신 것이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필요하구요. 그럼에도 2019년에 그동안 저희가 수집했던 자료들을 기반으로 베트남 전쟁 아카이브 기록전을 소월아트홀에서 진행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도 순회전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4월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지였던 16개 마을 피해자와 유가족 103명이 한국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방부에서 내놓았는데, 사실상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첫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러 큰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2017년에는 풍니퐁넷 사건에 대한 조사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진행했는데, 국정원에서 이를 비공개 처분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을 끌다가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라는 것이 당시 소대장의 이름 석 자 수준인 강통 공개여서 참 기가 막혔지요. 저희 판단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해결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이재정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진정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상규명과 평화연대는 재단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변이나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활동 중에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었던 것이 바로 2018년에 진행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민변, 베트남의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는데, 법정은 민변이 준비하고, 저희는 베트남 피해자 등 초청 관련 일을 맡았으며, 또 연구자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하미마을과 풍닛퐁넛 마을의 2명의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 나서 증언하였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실제 법정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김영란 주심은 두 개의 마을에 대한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의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선고하고, 한국 정부가 진상 조사 및 피해 배상을 실행할 것과 베트남전 참전 홍보 관련 모든 전시 공간에 한국군의 불법 행위 사실과 진상조사 결과를 함께 전시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판결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는 추도 사업과 장학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피해 마을에는 매년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리는데, 이에 대해 재단에서 제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조화를 보내 추모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하나당 7만 원인데 다양한 분들이 조화 보내기 사업을 후원해주고 계시고, 호치민에서 활동하시는 권현우 활동가가 베트남 현지에서 조화를 사서 중부의 피해 마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피해 마을에는 위령비가 곳곳에 있어 기일마다 꽃이라도 놓여 있지 않으면 마을 분들이 굉장히 쓸쓸해하십니다. 그리고 꽃을 보내드리면 누가 보냈는지 관심을 갖고 '꽃이 예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으로 평화 기행을 갈 때도 하얀 국화와 향을 많이 챙겨갑니다. 위령비 말고도 큰 피해를 입었던 빈호아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한국군을 증오하는 증오비가 남아 있습니다. 증오비가 점차로 위령비로 바뀌고 있어서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증오비에는 한국군이 어디서 얼마나 죽였는지 학살 통계표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행자들이 보고 많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빈호아 마을과 같은 피해 마을을 중심으로 재단에서는 추도 사업 외에도 여러 후원자들과 롯데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장학 사업, 통학 자전거 지원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놀이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며, 재작년에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하노이 북쪽에 고엽제 피해자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집집마다 조상을 기리는 제단이 있고, 누구나 꽃을 참 좋아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간의 불행한 과거에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과나 진상규명, 아무런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단에 꽃을 올리는 작은 행위로나마 진실한 사과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 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과거를 접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베트남 정부의 국가 시책 아래서, 피해마을 주민들 또한 어쩌면 제단 위에 올려진 꽃 한 송이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헛헛한 빈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추도 사업이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이들을 위한 손잡음이라면, 장학 사업은 미래 세대를 향한 손잡음이다. 한베평화재단의 장학 사업의 특징은 다양한 개인 후원들이 학생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놀이터 지원 사업과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놀이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해 마을이 있는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현지 학생들의 디자인을 토대로 베트남 스타일로 만들어졌고, 덕분에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 놀이터를 온전히 제 것으로 즐기고 있다. 그곳이야말로 전쟁의 기억이 평화의 기억으로 옮겨가는 마법의 장소인 것이다.



반탄동 초등학교의 초록 놀이터. 쉬는 시간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학생들



**언택트 시대의 고민과 도전,  
궁하면 통한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이나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 국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더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랜선을 통한 비대면 모임에도 익숙해져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는 최소화해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야 공감미 되고, 거기서 여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후원도 일어날 텐데 비대면은 그런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닙니다. 저희 재단으로서는 평화기행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례로 평화기행에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인권평화재단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비용 지원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베트남에 가기 위해 공부 모임을 계속 해오던 청년들이 6명 정도 있었는데, 기행을 나가지 못해서 부담이 많았죠. 그래서 대안으로 국내 베트남평화기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참전군인들이 참전하기 전에 훈련을 받았던 화천 오음리에 지어진 월남참전기념관을 돌아보고, 별도로 베트남 활동가가 진행하는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 랜선 투어도 참여하는 일정으로 기획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군 최대 학살지인 빈안 학살 55주기인데요, 저희가 직접 참배하러 갈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빈안 학살 위령제(2월

26일)에 즈음해서 10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1004 기억콘서트’를 지난 3월 5일 성수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콘서트는 줌(Zoom)과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성미산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공연에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하모니카 연주를 해주신 청년 예술가 분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공연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러워하시기도 하셨는데, 공연 후에는 공연의 여운이 너무 깊어서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돌려보셨다고, 의미 있는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첫 시도였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콘서트였습니다. 이 외에 평화교육과 관련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보다 평화교육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빈안학살 55주기를 맞아 한국에서 보낸 1004송이 국화꽃과 12개의 조화

베트남 전쟁에 대해 교육하려면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데, 사실 학교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지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교과서에 관련 내용들이 실리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해냄에듀에서 나온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반대급부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단순히 피해와 가해의 구도 속에 갇히게 되어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전쟁 70주년 계기 교육자료로 만든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라는 평화교육 교재에서도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비교적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의 다양한 활동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저희는 베트남전쟁 문제가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교육이 아니라도 저희에게 교육 의뢰가 들어오거나 작은 도서관이나 평화 공간에서 교육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평화꾸러미>라는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참전군인과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무빙툰’, ‘그림책 워크북’, ‘평화로 만나는 헌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국가의 무관심으로 전쟁의 고통이 개인화된 상황에서 그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가의 기억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개인들의 전쟁의 기억들을 잘 기록하여 평화교육 자료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던져준 평화의 화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평화저널 플랜P> 이번 4호 주제가 POW  
(prisoner of war)입니다. 여전히 전쟁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 사회가 전쟁의 기억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 베트남전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평화’란 말은 여전히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이야기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분단을 넘어선 평화로 나아가는 데 베트남전의 경험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피해자로서의 역사 인식을 각인해 온 것이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만 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떤 폭력 상황에서는 누구나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 경험을 가져다준 전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은 단지 역사 공부의 소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평화라는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는지, 왜 평화의 방향으로 인식을 넓혀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 인식의 거울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전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서구 사회에 68혁명이라는 자유의 물결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아래 그러한 혁명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병을 했고, 전쟁에 대한 성찰 없이 한국은 전쟁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는 방식으로 그 시절을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많은 곳에 해외 파병을 하고 있는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베트남 전쟁을 해외 파병 역사의 시작점으로 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트남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파병의 명분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해외 파병을 관할하고 있는 국방부로서는 베트남 전쟁의 의의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베트남 전쟁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파병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전쟁은 현재 우리의 평화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베트남 피해자나 참전군인 등 수많은 당사자들도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에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진행형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5조’에 우리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베트남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총을 들고 갈 이유가 없었던 전쟁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쟁 지역에 한국군이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 때도 처음에는 전투부대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평화유지군도 언제든지 분쟁 당사자가 되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식이나 국제적인 협상 테이블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화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 문제도 그렇고 국제적인 연대와 평화 확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활동도 비록 한국에 적을 두고 있지만, 활동의 범위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  
그 자체가 평화교육 자료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바나 꼭 이루고 싶은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참전군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베트남전쟁이 갖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참전군인을 계속 가해자의 위치에 세우게 되고 계속 피해자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베트남 피해자나 참전군인 등 수많은 당사자들도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에 무관심할 뿐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파병군인이 32만 명 정도이고 현재 국가보훈유공자가 19만 여명이 되는데요, 이중 실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참전군인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군이라고 일반화해서 참전군인 전체를 가해자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고민의 지점들 속에서 저희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군인들은 국가 폭력에 동원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참전군인들 중에는 민간인 학살 보도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남아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정작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전쟁 자체는 다 반대하십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그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 재단에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다가가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들도 잘 담아 기록해두고 싶은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작년에는 참전군인 당사자와 가족, 고엽제 피해 2세이신 분을 모시고 참전군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고, 2019년에는 ‘월남에서 온 그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베트남, 한국의 참전군인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과거에 총을 들고 마주했던 분들이 평화의 시대에 다시 마주 앉는 경험은 저에게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피해와 가해의 구도로 볼 수밖에 없지만, 참전군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쟁은 그들의 삶의 연속성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참전군인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달리해보면, 그분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자신의 전쟁 경험을 나눠주시는 그 자체가 이미 평화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평화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베트남 참전군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화활동의 주체로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전군인들의 평화활동 사례를 발굴해서 누구보다도 참전군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참전군인의 평화활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 당사자성을 가진 참전군인들을 소외시키고는 결코 평화로 나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참전군인들께서 자신의 경험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치환될 수 있고, 사회적인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시게 되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 저의 남은 바람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슴을 두드렸던 그 무언가의 정체는 바로 ‘진정성’이라는 단어였다. 이 말의 깊이와 무게가 이토록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보이기 전에 느껴지는 것으로서, 다가가기 전에 다가오는 것으로서 한베평화재단에는 평화에 진심인 그들이 만들어 내는 가슴 떨리는 특별함이 있다. 모두에게 잊혀가는, 그러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더 큰 평화로 보듬어 나아가고자 하는 고통의 연대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며,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매일 한 시간씩 이어가고 있는 피스 피켓팅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한베평화재단이 이 땅의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단체로 발전해나가길 응원하며, 귀한 시간 내주신 석미화 사무처장님께 감사로 전한다. P**

#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탐욕적인 군부와 시민들의 저항

미얀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얀마를 통치해왔다. 군부는 자신들이 미얀마를 통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하면서, 정치와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와 행정 전반을 장악해왔다. 1988년에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항쟁을 총칼로 진압했고,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하 NLD)이 승리하자 다시 쿠데타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켰다. 2007년 불교 승려들을 중심으로 벌인 대규모 시위였던 이른바 '샤프란 항쟁'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어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하여 군부에 자동으로 25%의 의석을 배정하고, 군부가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헌법을 새로 만든 후에 2010년 총선을 거쳐 2011년에 민정의 외피를 쓰게 되었다. 군부 출신 테인 세인 정권은 2011년부터 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2015년 총선에서는 마침내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가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부에게 권력 분점을 강요하는 헌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NLD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라는 양대 권력 사이의 충돌이라는 불안 요소를 품고 있었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NLD가 승리하자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다.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군부의 견고한 태도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시민들을 고문하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데, 미얀마 군부는 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고문하고 고문으로 피폐해진 시민들의 모습을 국영TV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군부의 잔혹한 탄압은 국제 사회의 무기력한 대처와 맞물리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무장 투쟁을 강요하고 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잃은 민주진영은 지속적으로 주류 버마족과 싸워왔던 소수 민족들과 연합하여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이하NUG)

군부에게 권력 분점을 강요하는 헌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NLD와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라는 양대 권력 사이의 충돌이라는 불안 요소를 품고 있었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NLD가 승리하자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다

를 결성하고 무장 투쟁을 선언하였지만, 여전한 버마족에 대한 소수 민족의 불신과 막강한 미얀마 군부의 무력을 감안할 때 무장 투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군부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끈질긴 저항이야말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유일한 희망이다.

## 한국에 감사하다는 미얀마 시민들. 그러나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은 쿠데타 초기에 큰 화제가 되었다. 2019년의 홍콩 시위, 2020년의 태국 시위에서도 한국의 도움과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 대한 관심, 시위의 주축인 청년 세대들이 한국의 대중가요를 시위에서 부르는 모습 등이 화제가 되곤 했다.

미얀마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이에 화답하

는 한국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의 노력은 이례적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지금도 많은 모금과 지지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오체투지와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역시 미얀마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시민들의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의식하여 이례적으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와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재검토, 국내 미얀마 거주민의 체류 자격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치도 발표하였다. 정치권의 관심도 계속 뜨겁다. 국회의원들은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민들에 면담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고, 국경지대에 난민 캠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비해서 미얀마에 대해 유독 적극적인 이러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은 미얀마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와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은 매년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미얀마 국영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대금이 군부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미얀마를 통치해온 군부가 국영기업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자원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다. 쿠데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급될 대금들이 군부 정권의 안정은 물론이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탄압에 사용될 것은 자명하다.

### 한국 시민사회 대응의 과제

한국 시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왔다. 지금도 미얀마를 위한 지지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의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도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률과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한국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쿠데타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상황을 대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것과 비교할 때,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온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시민들의 호응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된 기업의 이익을 용인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동시에 직시해야 할 것이다. P

미얀마 시민들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이에 화답하는 한국 시민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의 노력은 이례적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지금도 많은 모금과 지지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된 기업의 이익을 용인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동시에 직시해야 할 것이다

# 평화의 언어를 배우는 방법

글 권세리 Cheryl Woelk  
조울컬렉티브 언어 및 평화교육 활동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겪은 일이다. 그날은 청년부가 교회 건물을 청소하는 날이었다. 당시 나는 한국의 한 NGO 단체에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족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청년부에 참석해 달라고 초대했고, 나는 젊은 열정으로 봉사하겠다고 마음먹고 함께하기로 했다.

그 교회의 청년부는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업을 한 가지씩 맡아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일동 집합”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청년들도 똑같이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줄을 만들었다. 이후 목사님이 바닥을 가리키면서 짧게 한마디 하시자, 청년들이 빗자루를 들고 말없이 청소하기 시작했다. 군대 문화가 덜 강요되는 전통적 평화교회에서 자라난 캐나다인으로서는 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사이에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다. 청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지만, 나는 기분이 아주 묘했고 충격을 받았다. 물론 분명히 군대적인 문화를 통해서 빨리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군대와 전혀 관련 없는 공간인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나에게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물론 세상 어디를 가든 군사주의의 영향을 볼 수 있지만, 한국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볼 때 일상생활에서 군사주의의 영향과 평화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군사주의의 문화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언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언어 교육자이자 학습자로서 나는 우리가 언어학을 통해서 '평화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 군사주의의 문화가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언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 평화의 언어란?

평화의 언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베카 옥스퍼드(Rebecca Oxford)라는 작가에 따르면, 평화의 언어는 평화를 설명하거나, 반영하거나, 표현하거나, 확산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Oxford, 2013). 평화의 언어는 평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런 언어 자체로 우리와 사회가 변할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한 사회를 넘어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화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내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개인 간 관계에서도 평화의 언어가 갈등을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도 알게 된다. 또한, 평화의 언어는 우리 사회 안의 폭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확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폭넓은 효과가 있는 평화의 언어는 우리의 단어 사용뿐만 아니라 소통 방식 그리고 전체적인 태도와 말하는 스타일과도 모두 연결된다. 중국어와 독일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언어는 단순히 평화를 주제로 공부하고 말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말하며 연습해야 평화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의 언어는 사용 맥락에 따라서 그 모습이 아주 다양할 수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표현과 혼자말(self-talk)의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를 향한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는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말을 연습하는가? 개인 관계 속에서 평화의 언어는 먼저 잘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표현하도록 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 상대방이 말할 때 방해하지 않고 비판 없이 들은 다음에 자기 관점을 잘 표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평화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언론에서 혐오와 차별적인 말을 쓰기 시작하면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 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는 대화를 열어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평화의 가능성이 더 생긴다. 국제적인 평화의 맥락에서도 언어가 중요하다. 비록 국가와 언어가 다를지라도, 평화의 언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 국제적 협정과 약속 그리고 환경과 국제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평화의 언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큰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모두가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할 아주 먼 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일단 평화의 언어는 ‘언어’이므로 언어 습득론과 언어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언어 습득론 측면에서 본 평화의 언어

언어 습득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은, 언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연령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만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오해이다. 적합한 환경만 있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평화의 언어도 사람의 본능적인 기능이며, 평화로운 환경만 있다면 큰 노력 없이도 누구든지 평화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 평화의 언어는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평화의 언어를 하는 ‘원어민’의 개념도 없다. 사람에게 언어를 본능적으로 알고 배우려는 특성이 있듯이, 본능적으로 평화를 알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특성도 있다.

언어를 배울 때는 단어뿐만 아니라 음운, 의미론, 문법, 실용학 등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화의 언어는 평화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 있지 않다. 갈등 속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사용한다 해도 화가 난 표정과 억양으로 말을 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키우게 된다. 목소리의 느낌, 말하는 뉘앙스와 목적, 무엇을 강조하는지, 누구의 권력 또는 힘을 인정하는지, 말하는 맥락의 영향 등을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평화의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다.

최근의 언어 습득론에서는 신경과학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뇌뿐만 아니고 온몸을 사용하므로 사람들 각각의 감정과 독특함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뇌는 패턴을 예측하는 연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참신한 반복(novel repetition)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화의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과 같이 일하게 될 때마다 늘 부딪치는 상황이 있다고 치자. 이것은 과연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와 경험한 갈등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이 떠오르기 때문인가? 새로운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과거의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비판적 성찰과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반응은 예전 반응과 같을 수밖에 없다. 평화는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평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언어 또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매번 새로운 상황 속에서 평화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거의 갈등 경험을 깊이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 언어교육 측면에서 본 평화의 언어

그렇다면 평화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언어를 배울 때 말하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듣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평화의 언어를 배울 때도 평화 언어의 모델을 많이 찾아서 살펴보고, 의사소통할 때도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영화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들을 때 무엇이 소통에 도움이 되고 방해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를 잘 사용하려면 듣는 것뿐만이 아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서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공부하고, 글을 해석하는 데 힘을 쏟지만 막상 실제로 말을 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평화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론만 이야기하지 말고 많은 연습, 작은 실험,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소통을 배워가야 한다. 언어를 배울 때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듯 평화의 언어를 배워갈 때도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소통의 기회가 평화 언어의 학습장이 될 수 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그 언어를 자기 언어로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주체적인 느낌이 없으면 남의 언어를 배운 것 같고, 배움에 한계를 갖게 된다. 자기 언어로 만들어 사용하면 우리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백인 미국인 즉 ‘원어민’의 말을 목표로 세우고 학습하는데, 그러면 영어로 말할 때 부족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영어를 권력의 언어로 만든 제국주의의 결과이기도 한데, 영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에 억압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백인 또는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게 된다면, 백인우월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평화 언어의 관점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누구라도 차별을 당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존중과 정의로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화의 언어에 대한 주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회 속의 군사적인 언어를 뒤집는다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결론

필자는 캐나다에서 자라난 백인이자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세계관이 어느 정도 형성된 대학교 졸업 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자라나면서 습득한 세계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국어를 새롭게 보게 된다. 군사주의의 언어에서 평화의 언어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권한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주의 언어만 말했던 사회에서 평화의 언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군사주의 언어인 '모국어'를 새롭게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전쟁과 식민지화된 언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과도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캐나다의 정착형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의 경우 다양한 원주민의 언어가 식민화를 거치며 소멸될 뻔했다. 현재의 원주민 세대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언어를 새롭게 배우며 언어를 되살리려고 노력한다. 민족의 옛말을 계승어(heritage language)라고 하여 아주 귀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계승어 교육의 중심이 되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설립부터 신문과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 확산, 대학 학과의 개설 및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계승어를 공식 언어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변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을 볼 때, 평화의 언어를 ‘인간의 계승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는 한 세대를 넘어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평화 언어인 계승어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P

### 참고문헌

Oxford, R. L. (2013). The Language of peace : Communicating to create harmony. Information Age Publishing.

# 연대의 첫걸음인 공감과 이해를 돕는 보드게임



보드게임 인티파다  
구매 링크



글 세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팔레스타인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인티파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하 '인티파다')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을 하면서 들게 된 단순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어떻게 하면 멀게만 느껴지는 팔레스타인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만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본 것처럼 낯설어하거나, 가자 공습의 참상만을 기억한다. 하지만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이 겪는 아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역사부터 현재 상황까지 설명하다 보면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다. 처음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복잡한 지역 갈등 또는 종교 분쟁쯤으로 치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동정심에 그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그런 과정에서 '쉽고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떠오른 것은 '보드게임'이었다. 나에게 보드게임은 어린 시절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있어야 할 때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왁자지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즐거운 게임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접근성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 같았다. 또한 게임의 다양한 요소들과 규칙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상황을 느끼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있게만 만든다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게임을 하게 될 것이고, 플레이 속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른 설명 없이도 팔레스타인이 플레이어들에게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게임을 개발하고 제작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보드게임 <인티파다>는 '활동가, 구호대, 언론인, 교육자, 게릴라'라는 각각 다른 능력을 지닌 5명의 캐릭터가 팔레스타인 지도 위 6개의 지역을 이동하며 자원을 모아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임이다. 문제 카드에는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어떤 카드에는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혀 있다. 1명이 이기게 되는 '경쟁 모드'나 모두가 함께 승리하거나 패배하게 되는 '협력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어들이 팔레스타인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쇄되어 있는 가자지구나 분리 장벽과 검문소로 둘러싸인 서안지구는 출입이 어렵게 고안했다. 또한 같은 지역에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모여 있는 경우 '연대'를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하였다. 봉쇄로 자원이 부족한 가자지구에서는 자원을 얻으려면 주사위를 굴려, 이집트로 이어진 땅굴에서 사용된 자원만 모을 수 있다. 보드판에는 팔레스타인 지역명이 표기된 실제 팔레스타인 지도를 넣어서 플레이어들이 눈과 귀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무력 자원'을 게임의 요소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실제로 무력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게임 요소로 포함되었다. 다만 당장은 무력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그에 따른 패널티도 부과하여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처음 구상했던 것은, 주사위를 굴러 길을 따라가며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이벤트로 만나게 되거나, '뱀과 사다리 게임'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 방식은 게임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방식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이나 어려움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료와 함께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하느냐' 아니면 '플레이어가 재미있어 하는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느냐'였다. 결론적으로는 재미있는 게임이 되어야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것이 팔레스타인 이슈를 더 가깝게 느끼는 본래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다. 게임이 완성되어서 여러 사람과 모여 플레이를 하면서 스스로 '아하!' 하는 순간이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서 플레이하던 한 친구가 "네 게브로 가! 네게브로"라고 외쳤던 순간이다. 당시 게임 제작을 위한 소셜펀딩에 성공하여 파티를 연 왁자지껄한 자리였음에도 그 소리는 내 귀에 꽂혔다. 한 번도 입으로 내뱉지 않았을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게임에 몰입하여 외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 친구가 그 지역명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기만 생긴다면 분명히 상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의 머릿속에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기억의 가지들이 점점 넓혀져 나가는 모습이 그 순간 연상되었다.



강의를 나가서도 게임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팔레스타인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펼치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으로 먼저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강연을 진행했을 때 몰입도가 더 높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임에 등장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탄압이나, 플레이하면서 느낀 이동의 제약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여주면 참가자들이 더욱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보다 좋은 질문들과 의견, 그리고 감상을 나누는 바람직한 교류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 게임 하나만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뿌리 뽑지는 못할 것이다. 오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인종청소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굳건한 연대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한 연대의 첫걸음은 팔레스타인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곁에 가까이 두고 언제든 부담 없이 꺼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이라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인티파다>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연대의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란다. P



## "내 아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권리"

### 스위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50년간의 활동

글 브루노 & 하이디 자게씨

Bruno und Heidi Sägesser

평화운동가, 스위스대체복무제 입안자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준비하는 구조가 우리를 사로잡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사회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세계의 전쟁 양상 또한 변하고 있지만, 군의 구조와 군복무 형태는 거의 단일하게 유지되고 있지요. 안보의 영역도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의 역할, 그리고 군에 참여하는 대상과 참여 형태도 다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스위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평생을 바쳐 활동해 온 브루노와 하이디 자게씨 활동가 부부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합니다. <평화저널 플랜P>를 위해 멀리 스위스에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 스위스는 이런 나라

스위스는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립국'으로 간주된다.

스위스는 2002년 9월 10일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 즉, 스위스도 UN 결의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영세중립국이 아니다.

	스위스	한국
인구	8,545,000 (2019)	51,700,000 (2019)
크기	41,285 km <sup>2</sup>	101,000 km <sup>2</sup>
km <sup>2</sup> 당 인구	km <sup>2</sup> 당 207	km <sup>2</sup> 당 529
유권자	5,500,000 (어린이와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다)	43,994,247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포함한 의회 민주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연방 의회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다. 46개 주를 대표하는 주 의회(Council of States)로 구성된 지역대표 의회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 의회(National Council)다. 이 두 의회는 법률을 논의하고 통과시킨다. 국민들은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발안의 경우 원하는 안건을 연방사무국에 제출하고, 18개월 안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하며, 이후 연방사무국의 허가가 떨어지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 투표는 1년에 4번, 3개월마다 진행된다. 국민투표에는 의무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가 있다. 헌법 개정 등의 특정 안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회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야만 한다. 일반 법률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법안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이것이 선택적 국민 투표다. 국민 투표 참여율은 35~60%로 나타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투표를 앞두고 선전을 한다. 안타깝게도 돈이 더 많은 사람(예를 들면 돈 많은 사업가)이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라든지 '부유세 인상', '어떤 의원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자본을 덜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이다.

스위스는 중립국 민주주의의 모델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위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중립국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 같은 이유로 스위스는 적대국 간의 갈등 중재를 제안하기도 한다.

#### 스위스의 중립성에 관하여

'중립'은 전쟁에서 어느 쪽도 돕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14~1918년과 1939~1945년에 일어났던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전쟁을 겪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인접 국가와는 달리 스위스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중립적인 작은 국가 스위스의 방위력이 강력했고, 전쟁에 참여한 권력국들이 스위스를 공격하면 도리어 큰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이 '신화'는 한동안 지속되었고, 여전히 군대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사실로 남아있다. 그러나 진실은, 스위스 은행이 전 세계의 호전적인 엘리트들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 특히 독일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던 방위산업체의 자금을 숨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립적인 스위스'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다.

#### 스위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걸어진 길

2018년 10월 말, 세 번째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KAC, Korea Anabaptist Center)의 초대로 '평화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스위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50년간의 활동을 보고했다. 121년 동안의 단일 군복무 제도에 스위스에 대체복무가 도입되었다.

평화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스위스 대체 복무 도입 활동의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스위스 대체복무제 도입 활동

1875년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 적용

1903년 대체 복무의 첫 정치 청원 실패

1970~1990년 1만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음

1974년 1차 국민투표 실패

1984년 2차 국민투표 실패

1992년 3차 국민투표 성공

1996년 대체 복무 도입 : 군 복무 대신 수행되는 대체 복무는 국민을 위한 봉사이며 군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군 복무 기간은 일반 군복무보다 1.5배 더 길고 병역 조건도 다르다.

#### 내 아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권리

1973년 22세였던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3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훗날 내 아들이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꿈을 꾸었다. 1996년에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때까지 거의 25년 동안, 메노나이트 신자로서 나는 교회와 정당과 연대하여 열심히 활동했다. 그 결과, 다섯 아들에게 대체복무라는 선택지가 주어졌고, 아들들은 모두 일반 병역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했다!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군과 보수적인 정당들은 대체복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도 방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법 개정을 이용한 강력한 공격이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대체복무제 자체와 '일생의 노력'을 망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교회와 정당의 협력이 다시금 필요했다. 정치인들과 정당의 대화도 뒤따랐다. 다행히 투표 직전에 의회에서 과반수가 확보되어 '103 대 90'으로 대체복무제가 유지되었다! 이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2020년 6월 19일이다.

막내아들 루카스(25세)는 2020년 6월 21일에 감사 카드를 썼다(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들은 의회 투표에 만족했다. 대체복무제를 위해 수십 년간 우리가 헌신한 일들, 즉 법원 청문회, 수감 생활, 사회적 배척 등 우리가 겪었던 온갖 고생스러운 헌신에 고마움을 표했다. 루카스는 스위스 대체복무를 다시 제한하거나 해체시키려 할 때, 이미 성취된 스위스



대체복무를 유지하게끔 목소리를 낼 책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부모님은 제게 자랑스러운 롤 모델입니다" 라는 아들 루카스의 고백은 감동과 행복으로 다가 온다. 우리에게 용기를 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한국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2006년에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법정 선고로 수감되고, 직업을 얻을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을 생각하며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

브루노 자게씨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로 3개월간 수감된 후에도 1982년부터 8년간 군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거부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1992년 자게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고, 이전까지 민간 복무 요원들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군 배상금이 철회되는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자게씨 부부는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와 함께 활동했고, 요즘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병역거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겠다'는 평화로운 꿈으로 일생을 바쳐 활동해 온 자게씨 부부.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평화가 선택지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P

1973년 22세였던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3개월 동안 수감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훗날 내 아들이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꿈을 꾸었다.

‘전쟁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라든지  
‘부유세 인상’, ‘어떤 의원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자본을 덜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평등이다

## 전쟁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위한 작은 선택

### 2018년 이스라엘·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호방문 프로그램

글 김복기 평화저널 플랜P 발행인

2018년 1월 12일에서 25일(한국), 2월 13일에서 27일(이스라엘), 두 나라를 오가며 '이스라엘·한국 평화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만연한 전쟁과 군사 문화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감내해야 하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CO로 살아가는 두 명의 청년이 서로 만나 배움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CO'란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혹은 Objector 거부자)를 지칭하는 약어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유사한 점이 참 많다. 신기하게도 이 두 나라는 모두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 수립 후 양쪽 다 치열한 전쟁을 경험하였고, 여전히 군사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라다.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이스라엘 10위, 한국 11위를 기록하였다. 2011년에는 이스라엘 10위, 한국 8위로 바뀌었다가, 2020년에는 한국이 6위를 이스라엘이 18위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군 복무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은 병역이 의무라는 점, CO에 대해 매우 강렬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 개인의 자유라든가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지지해야 할 기독교와 유대교가 인권을 말하면서도 국가의 군사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거나 군 복무를 지지함으로써 CO를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서적으로도 CO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런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회에서 소외의 대상이 되거나 더 나아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얻거나 직장을 구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거나 무시되어 왔다.

이스라엘은 한국과는 달리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다만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을 복무한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거의 일을 찾기 힘들 정도이다. 대학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불리함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이 병역을 거부하는데, 대체복무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2018년, 당시 한국은 병역거부가 불법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2016년 기준, 54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 중이었다. 다행히도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는 모두 가석방되어 한동안 수감자가 없다가, 2021년에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4명, 양심에 따른 거부자 2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록 대체복무 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병역 거부자 병역 기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3년이라는 장기적인 대체복무안을 수립함으로써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자의 감옥 수감은 한국과 달리 몇 주에서 길어야 3개월가량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된 동안에도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며 회유된다. 이스라엘에도 대체복무제가 있기는 한데, 이는 기본적인 병역 훈련을 받은 후에, 혹은 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행해진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쉽지 않다. 199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활동의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선택적 거부와 전적 거부가 있다. 선택적 거부는 명령 불복종이나 특정 지역과 영역에의 복무 거부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감옥으로 보내지지는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1982년 레바논 침공 이후로 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안 지구나 가자 지구에서 복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한국의 평화교환 프로그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각 나라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평화학'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 작은 평화의 발걸음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평화교회의 전통을 가진 아나뱃티스트·메노나이트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한국과 이스라엘의 두 청년을 만나게 하고, 각 나

라를 방문하여 2주씩 머물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솔하게 나눠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랐다. 폭력적인 사회와 문화 속에서 '평화'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평화를 선택하며 살기로 한 이들의 대안적 삶을 지역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며 함께 배워가기를 기대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이스라엘 CO와 한국 CO의 첫 만남 후, 평화교회가 있는 춘천으로 이동하여 설교 시간에 평화의 신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군대 문화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춘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철원의 국경선평화학교 방문, 민통선과 DMZ 너머의 북한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 아픔을 나누었다. 국경선평화학교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동안 끊이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였고, 1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아나뱃티스트 컨퍼런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평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스라엘에서 방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표한 '이스라엘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이야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정경수가 말하는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 지금은 제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송강호 박사의 '제주 해군기지 완공, 그 이후',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덩야핑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군사점령, 그리고 식민화'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가수 홍순관의 '평화는 아침에 피어나는 꽃처럼 오리니' 외 2곡을 반주 받았다.

그렇게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가며 평화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워나갔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서동욱 교육팀장이 준비한 '회복적 정의 운동과 피스빌딩: 사법을 넘어 사회변혁을 향하여', 한국갈등전환센터 박지호 소장의 '한국사회 갈등에 대한 전환적 접근의 시도와 모색', 그리고 회복적학생생활센터 이병주 선생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평화교육'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평화' 이야기만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평화를 살아가는 평화인'들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 2003년부터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전쟁없는세상'을 포함하여 몇 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현실 가능한 방안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는 덕소에 있는 또 다른 평화교회를 방문하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남은 이삼일 동안에는 논산의 평화누림교회에 숙소를 정하고 인근의 논산훈련소, 병영체험장을 방문했다. 또, 영동의 황간면 노근리의 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국이 경험한 전쟁의 상흔을 함께 아파했다. 2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편 그다음 달에는 한국의 청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찾아가 전쟁과 갈등의 현장을 목격하였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교회나 단체들을 방문하였고,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CO와 코디네이터를 만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CO 관련 소식과 더 큰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실험적 프로젝트라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교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우선 한국에서의 활동은 몇몇 작은 평화교회 및 평화단체들의 연대와 환대, 지지가 뚜렷이 보였다. 기존의 주류 기독교회의 의심의 눈초리, 반감, 혐오나 배제의 시선과는 달리 평화교회의 CO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있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와 동시에 미래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문한 평화교회와 평화단체는 물론 평화활동가들과 나누었던 대화, 짧은 기간에 참여한 컨퍼런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일정 하나하나가 큰 의미들로 다가왔다.

이스라엘 · 한국의 평화교환 프로그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각 나라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국의 CO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지역을  
 오가는 동안 검문소에서 느낀 삼엄한 경계,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분쟁 한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활동하는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의 평화교육에 대한  
 활동이 인상 깊게 남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직접 만나본 것은 비록 짧은 10분간의 만남이었음에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한국 방문 일정이 이스라엘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평화활동가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CO나 지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스라엘에서 소수의 CO로 사는 이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았는가는 평가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국의 CO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지역을 오가는 동안 검문소에서 느낀 삼엄한 경계, 젊은 청년들과의 소통,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분쟁 한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활동하는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의 평화교육에 대한 활동이 인상 깊게 남았다고 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독교평화건설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상황에 따라 전체 프로그램의 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몇몇 아쉬운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자체가 가져다준 의미는 적지 않다. CO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은 한 번 병역을 거부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큰 사건이기에 여전히 CO의 삶에 계속 말을 걸어오는 평화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더불어 CO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들을 품어야 할 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인권을 주장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기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땅에서 전쟁에 저당 잡힌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그 고민을 멈춰서는 안 될 일이다.

이스라엘·한국 평화교환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사람으로서 이 글을 정리하는 내내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라는 모토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사로잡힌 사회가 아닌 평화를 누리는 사회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은 아닐까? 세계나 국가 차원의 큰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의 권리와 일상의 작은 평화는 스스로 챙기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전쟁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으려면... P



## 막장드라마 <펜트하우스> 인기의 비밀

글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설킨 인물 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 참조) ‘막장드라마’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막장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담긴 ‘막장 오브 막장’이다.

시즌 3 방영을 앞둔 <펜트하우스>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해 10월에 방영된 시즌1 첫회는 9.2%의 시청률로 출발했지만, 시즌1 마지막회는 28.8%까지 상승했고, 시즌2 마지막회는 순간 시청률 31.1%를 돌파했다. 드라마에 관한 선호를 떠나 사회적 의미를 고민하게 하기에 충분한 결과다. 대중은 왜 <펜트하우스> 앞으로 몰려들었을까?

### 현상과 욕망으로서의 막장 드라마

이 질문에 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은 꾸준히 ‘막장’ 서사를 즐겨왔다. 그중 ‘막장드라마’는 TV 드라마가 보여줄 수 있는 대중적 재미를 가장 흥미롭게 구현하는 장르로서 꾸준히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펜트하우스>의 김순옥 작가를 비롯해 2000년대 막장드라마 영역을 견인한 문영남, 임성헌(필명: Phoebe) 작가가 동시에 새로운 작품을 내놓았고, 막장드라마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많은 드라마의 ‘막장화’가 구현되고 있다. 경쟁하듯 자극성과 폭력성의 에스컬레이팅(escalating, 확대·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 그 어떤 존재보다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우선 드라마를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나 사건을 재현하거나 '지금-여기'의 현실과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대중적 장르다. '드라마보다 더한' 뉴스가 과잉 생산되는 한국 사회에서 막장 드라마가 (재)활성화된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막장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 <펜트하우스>가 구현한 세계의 동시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 상승 욕망, 견고해진 계급 사회, 사유화된 공권력을 향한 불신, 학교 폭력, 교육(입시) 비리, 부동산 과 개발 등 한국 사회 문제가 집약되어 있다. 물론 과장과 왜곡과 비약으로 점철되었지만, 이런 '동시대성'이 대중을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대중은 <펜트하우스>를 통해 사회적 현상과 인간의 욕망을 투사하는 것이다. 막장드라마는 사회 문제뿐 아니라 인간을 통찰하기

에도 좋은 매개가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킹덤> <스위트홈> 등 좀비가 되거나 괴물의 형상을 등장시켜 현실을 은유하는 드라마들이 주목받았다면,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최근 드라마들은 그럴 필요도 없이 '인간'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어떤 존재보다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그 '악'은 인간의 순전하고 집요한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펜트하우스>는 일차원적인 직설화법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구축된 일차원적인 직설화법의 세계는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할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할 빌미를 제공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펜트하우스>는 막장 드라마의 근간을 이룬 '권선징악'의 불가능성을 함의한다. 과거에는 선한 인물이 악한 인물과 악의 카르텔을 응징했지만 <펜트하우스>에서는 모

## <경이로운 소문>과 <보건교사 안은영> 속 히어로는 누구도 함부로 해치지 않고

### 문제를 해결하는 '힐러(Healer)'에 가깝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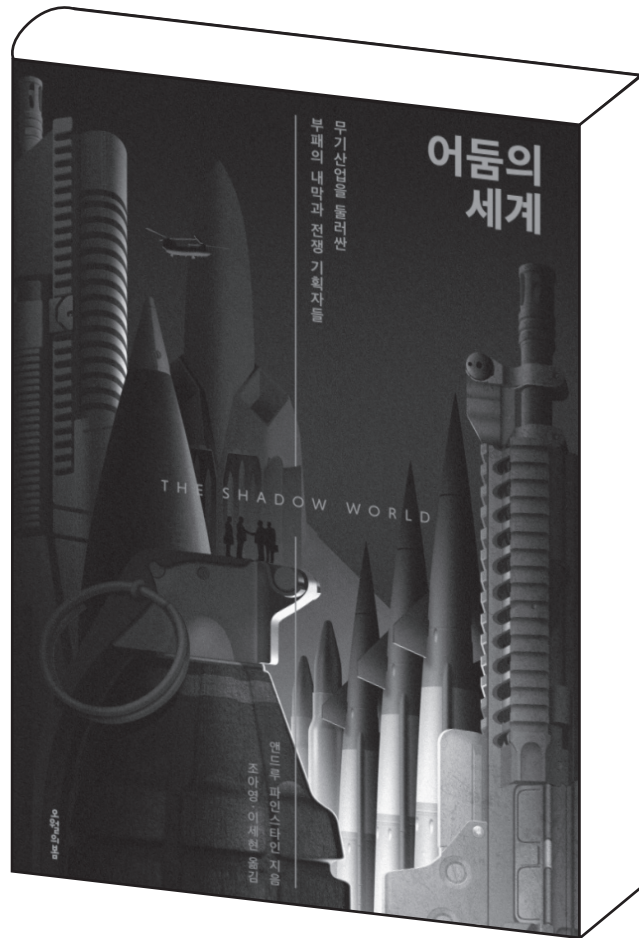
두가 저마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권선(勸善) 즉, '선을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악해질 수밖에 없다. 악을 응징하기 위해 악을 행하느라 매회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는 상황인데, 누구도 그 생명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세계에서는 성찰하는 인간이 존재할 틈이 없다. 좀비와 인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 직설 화법의 세계에서 대안적 상상력의 세계로

"상상력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얼마 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지인이 한 말이다. 드라마에 빚댄 말은 아니었지만, 드라마에도 적용될 말이다. 자극적인 폭력이 말초적 욕망을 대변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까?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지르는 '악귀'를 처단하는 '카운터'들의 활약을 그린 OCN 드라마 <경

이로운 소문>은 소년, 노인, 여성 등이 서로 협력하여 악귀를 물리치는 히어로물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은 인간이 내뿜는 '엑토플라즈م(영적 에너지의 물질적 형태)'을 보는 능력을 갖춘 보건교사 안은영이 장난감 칼과 비비탄총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판타지물이다. 이 드라마들 속 히어로는 누구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힐러(Healer)'에 가깝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가 현실을 비추는다면, 이 두 드라마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지향을 보여준다. '펜트하우스'를 향한 상승 욕망과 그런 욕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폭력적 지향으로 꽂 찬 세상에서 이런 대안적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P



## 《어둠의 세계》 무력감과 절박감을 동력으로

글 신재욱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 캠페인 팀원,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서평을 쓰는 5월 16일 현재,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2백 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무기 거래의 어두운 실상을 밝히고 있는 책 《어둠의 세계》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평가한다. 2009년 파리에어쇼에서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인 ‘엘빗 시스템즈’는 ‘감시용 및 공격용 무인기를 홍보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가상 공격 영상을 상영했다. 휘황찬란한 무기박람회에서 거래되는 것들은 효율적인 살상과 파괴를 위한 수단이다. 어떤 무기든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보로 거래된다. 아프리카 각국의 군벌들에게 손쉽게 무기가 공급되지 않았더라면,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죽음의 규모는 훨씬 감소했을 것이다. 지금 예멘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 거래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무기가 꼭 비인도

적으로만 사용되리라 법은 없으니까. 저자 역시 ‘세계는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기’에 어떤 형태의 무기산업은 필요할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장 9백 페이지에 걸쳐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무기 거래와 무기산업 자체가 태생적으로 지닌 죽음과 부패의 구조다.

첫 장에 등장하는 ‘바실 자하로프Basil Zaharoff’는 이후에 소개될 수많은 무기 상인의 원형 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무기를 전쟁 중인 두 부족 “모두에게 팔기 위해 전쟁을 부추”겼고, “무기 구매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뇌물” 주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무기의 수요는 전쟁에서 가장 많이 창출된다. 당연한 전쟁의 위협이 없다면 위협을 만들어내서라도 무기를 팔면 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무기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동기다. 위협을 측정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능력으로 간주되기에, 주로 군과 정치권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책 《어둠의 세계》가 언급하는 수많은 무기 거래의 사례는, 그들의 ‘전문성’이 커미션(방산업체가 거래 성사를 위해 군과 정치권에 지불하는 돈)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최대의 무기거래였던 알야마마 사업<sup>Al Yamamah arms agreement</sup>의 규모는 약 430억 파운드(한화로 환산할 경우 약 69조 원) 정도인데, 이를 위해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공한 뇌물은 최대 60억 파운드(약 9조6천억 원)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되는 무기 성능의 검증이나 그 무기가 비인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부차적인 것이 된다. 록히드 마틴 사<sup>Lockheed Martin Corporation</sup>의 대표 전투기 F-35는 미 국방부 항공우주 설계 엔지니어에게 ‘완전한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거의 4천억 달러(약 45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생산되었다. 록히드 마틴 사가 미국 군과 정치권에 제공한 천문학적 수준의 로비 때문이다. 이러한 무기 거래의 실상을 누군가는 그저 ‘방산비리’일 뿐이라며, 적법한 무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일탈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알야마마 사업의 자금 전달자 중 한 명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가 와픽 사이드<sup>Wafic Said</sup>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기딜러라면 BAE 회장도, 총리도 무기딜러다.” 군과 방산업체, 정치권이 결탁한 단단한 무기 거래의 사슬은 부패와 비리라는 윤활유가 있을 때만 굴러가기 시작한다.

알야마마 사업에 대한 영국 SFO<sup>Serious Fraud Office</sup>(중대 비리 수사청)의 수사는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한국의 감사원 역시 차기전투기 F-X 사업의 감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멘 내전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분명한 정황이 있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멘으로 수출된 무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기 거래의 정보를 숨기는 이들이 기를 쓰고 지키려는 ‘국가 안보’는 그저 그들 스스로의 뗏뗏지 못한 안위뿐일지 모른다. 《어둠의 세계》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법적 무기 거래 중 처벌 받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경제협력개발기구<sup>OECD</sup>의

## 군과 방산업체, 정치권이 결탁한 단단한 무기 거래의 사슬은 부패와 비리라는 윤활유가 있을 때만 굴러가기 시작한다

##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군사비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야말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보여준 헌신의 동력이 아닐까

뇌물방지협약, 국제연합<sup>UN</sup>의 무기금수조치 등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수많은 법은 군산정 복합체<sup>military-industry-political complex</sup>라는 ‘철의 삼각동맹’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이러한 철옹성 앞에서 무기 거래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평화활동가들도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 ‘분단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방예산 증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라거나 “전쟁 장사를 멈춰라!” 등의 구호는 이상주의자들의 허망한 구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했듯 무기 거래 정보 역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에 감시 활동도 쉽지 않다.

하지만 무기 거래가 초래한 여파는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더 큰 빈곤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군사비가 우리의 안전

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야말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보여준 헌신의 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책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무기 거래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무력감과 절박감이 함께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무력감은 연대를 위한 동력이며, 절박감은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올해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무기박람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아덱스, Seoul ADEX)가 열린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평화활동 단체들이 벌이는 ‘아덱스 저항행동’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P**



# 2021년 여름, 〈평화저널 플랜P〉가 알립니다

## 1 협력 단체 및 개인으로 등록해주세요.

평화의 가치를 위해 실천하고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분들을 '협력 파트너'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월 1회 일정 금액을 약정해주시고, 각종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협력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www.peacejournal.co.kr](http://www.peacejournal.co.kr) 에 방문하셔서 가입 경로를 밟아주시거나, 전화 02) 6339-2272 또는 이메일 [pjplanp@gmail.com](mailto:pjplanp@gmail.com) 로 문의해주세요.



플랜P 구독/협력회원

## 2021년 6월 현재 구독 및 협력 회원

고재호, 구태희, 권오석, 김경신A, 김경신B, 김경화, 김근영, 김난희, 김동규, 김병수, 김보미, 김상기, 김성목, 김수진, 김숙영, 김아주, 김영범, 김응기, 김일도, 김정명, 김정민, 김종호, 김현옥, 김혜숙, 김혜원, 문응상, 문종윤, 박상수, 박순영, 박승미, 박종민, 박희식, 배용하, 서영욱, 서진, 서형석, 석소미, 성낙환, 송주미, 손선화, 신동경, 엄효진, 여혜숙, 염승탁, 오동일, 오상열, 오은영, 용석호, 원순재, 원용일, 유대근, 유명진, 유미호, 유진아, 윤관혁, 윤동진, 윤해웅, 윤효진, 이광현, 이길승, 이미경, 이승준, 이영호, 이은영, 이재영, 이정훈, 이진숙, 이현호, 이화영, 임영민, 장수덕, 전기호, 전영숙, 정도용, 정병오, 정승용, 정연규, 정주진, 정지수, 정혜영, 정호남, 조규석, 조서휘, 주지현, 지성근, 진일교, 차정규, 최덕근, 최미숙, 최병유, 최항규, 최희중, 편현주, 한희석, 허미영, 현광미, 홍주리, 홍지훈, 황이진, 황홍렬  
개척자들, 공명교회, 광주소명교회, 대장간출판사, 대전평화여성회, 메노나이트예수마음교회, 메노나이트하늘가죽교회, 비폭력평화물결, 산돌교회, 삼송동안,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성심수녀회, 에듀피스, 원광명교회, 의정부뉴시티교회, 지음교회, 평화만사(평화를만드는사람들), 평화아이뚜비뚜바, 피스빌딩,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한국NVC센터,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 2 단회 구입 또는 정기 구독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1권당 12,000원 / 1년 45,000원 (6% 할인) / 2년 87,000원 (9% 할인)

KEB하나은행 181-910018-32105 김복기(평화저널)

또한, 인터넷 서점 '알라딘 [aladin.co.kr](http://aladin.co.kr)'과 오프라인 서점 '모모책방' '용서점' '풀무질' '책약방' '책방비영' '종이잡지클럽' '보안책방'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3 매호 광고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A타입(175\*250mm) 200,000원 / B타입(175\*125mm) 100,000원

## 4 '바로잡을 것' 또는 전하고픈 말씀을 주시거나,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후기 또는 [Learning], [Culture], [Voice] 꼭지에 글을 보내주세요.

## 5 취재, 촬영, 편집 및 행정 사무 등의 자원활동을 기다립니다.

1회만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 즐겁게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 NOTICE

Summer

2021

<회복적정의를 대화모임 2급 및 1급 전문가 양성과정>

# 온라인 2차 & 여름학기

정규과정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에듀피스(Edupeace)는 회복적정의 철학에 기초하여 평화교육과 갈등해결 및 조정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과 학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1. 온라인(ZOOM) 비대면교육

강의		날짜	수강료
온라인 2차	1단계-회복적정의와 서클진행	6월 5일, 12일(토) 총 15시간 9:30~18:00	10만원
	2단계-회복적정의와 갈등해결	6월 19일, 26일(토) 총 15시간 9:30~18:00	15만원

## 2. 2021 여름학기

강의	날짜	수강료
3단계-갈등조정과 대화모임	7월 29일(목)~31일(토) 총 23시간 9:30~18:00	25만원
[비숙박] 4단계-트라우마치유와 회복탄력성	8월 9일(월)~11일(수) 총 22시간 9:30~18:00	25만원
2급-서클진행 전문가	8월 6일(금), 7일(토) 총 15시간 9:30~18:00	20만원
1급-갈등조정 전문가	8월 13일(금), 14일(토), 21일(토) 총 23시간 9:30~18:00	30만원



자세한 교육과정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기타문의 TEL : 031-711-8409 또는 1644-8328 / 이메일 : admin@edupeace.net

## 대장간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신간



###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듯에 걸린 듯한 상황을 놀이와 활동 중심 배움 중심 회복적 정의 페다고지로 해결할 수 있다.

신간



### 노인을 위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 절차를 사용하면 노인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 능력을 존중하면서 노인들이 삶의 갈등과 학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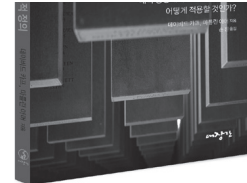
### 성학대와 회복적 정의

이 책의 핵심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문제에 개입했던 제한된 방식에 상상력을 자극하여, 성학대의 피해를 새롭고, 안전하고, 창조적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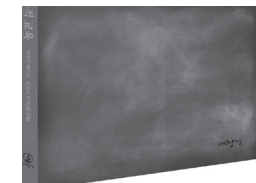
###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저자는 교도소 내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이 교도소 문화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대학에서의 회복적 정의

대학에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무자 가이드로 이 책은 학교 내 학생의 비행이 발생했을 때, 깨어진 대학 공동체를 복원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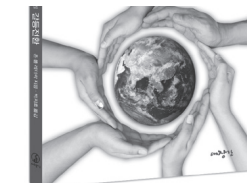
### 회복적 교육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관계와 연결의 문화를 꽃피운다. 명료하고 일관성 있게 교육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돕는다.



### 서클 프로세스

평화형성서클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에서 시작했다. 서클 프로세스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으로 그동안의 노력은 이미 곳곳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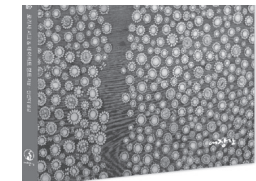
### 갈등전환

저자가 주장하는 "갈등전환"이라는 문제 설정과 접근 방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가해자들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에 대해 안내한다.



###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이 책의 작가는 대화의 원칙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이고 신선하면서도 희망적인 접근법을 소개한다.



###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처벌과 통제를 통해 규범을 준수하는 '착한' 학생이 되게 하던 것에서, 관계의 회복을 통한 책임감과 상호 존중을 배우는 학생이 되도록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저자는 이 책에서 회복적 정의와 사법을 가능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하고 있다.



###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이 소책자는 희생, 혹은 폭력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와 사회 즉 쓰나미 혹은 테러공격 등 안전을 위협받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 건강한 조직만들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조직이 좀 더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로워질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족들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전략적 평화세우기

이 책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평화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 평화는 단순히 멋진 아이디어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힘든 노력과 헌신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가족집단 컨퍼런스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아동 복지, 학교 교육, 청소년 및 성인 사법 제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절차로 사용된다.



### 성서는 정의로운가

이 책은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서를 토대로 하여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 주고 있다.



₩12,000

